

I. 最近 經濟 狀況 評價

1. 特徵

■ 96년 상반기 국내 경제는 총체적인 부진

- 성장률은 작년 상반기의 9.8%에서 7.3%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 민간소비가 8.4%에서 7.4%로 증가율이 둔화
- 수출은 33.2%에서 11.8%로 증가율이 급속히 하락
 -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59.9억 달러에서 92억 달러로 급증
- 설비투자 역시 21.5%에서 5%대로 급락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상반기의 3.1%보다 0.7%포인트 높은 3.8%를 기록

■ 경기 순환상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 진입

- 재고 변동에 의한 경기 순환 추이로 볼 때 국내 경기는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금번 경기 순환의 경기 정점으로 판단되는 95년 3/4분기까지는 출하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보다 높았음
 - 그러나 95년 4/4분기부터 재고가 급증하여 재고 증가율이 출하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
 - 특히 96년 1/4분기에 재고가 급증하여 생산 활동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재고 증가세가 하락하여 출하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보다 높아져서 경기 상승 국면으로 재진입하는 데는 대략 1년 내외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97년 상반기까지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내수 위주의 성장 구조 형성

- 수요 부문별 경제 성장 기여도 추이를 보면 95년 하반기부터 수출과 설비투자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반면 민간소비가 높은 기여도를 유지하고 있고 건설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소비와 건설투자 위주의 성장 패턴은 정부 부문의 공공투자 증가에 의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현상은 경제 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운영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2. 經濟 危機論에 대한 評價

■ 급격한 경기 침체에 의해 국내 경제의 위기론 제기

- 7%대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현 경제 상태를 경제 지표상 위기라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임
- 그러나 국내 경제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거시 지표의 동락에 있다가 보다는 성장 내용의 부실함과 금융 시장의 난조에 있음

성장 내용의 부실함	(거시적 측면) - 산업간 성장의 불균형 심화 · 체감 경기 악화의 근본 원인 - 내수 중심의 성장 구조 · 물가 상승과 성장 잠재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 - 개인 저축률의 급격한 하락 · 94년 개인 저축률이 33.0%, 95년엔 29.9% · 무역 및 무역외수지 적자 확대와 대외 부채 증가 - 경기 하강 속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외채 누적 · 96년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초로 11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 · 96년 총외채 1,000억 달러 예상 - 내년 경기 전망 불투명 · 경기순환주기상 97년 상반기까지 경기 하강 국면 지속 (미시적 측면) - 반도체, 철강, 자동차와 같은 수출 주도 품목들의 경기 악화
금융 시장 난조	- 증시 침체 - 금리 상승세로 반전 - 원/달러 환율의 고평가 - 금리, 환율의 변동성 확대

II. 海外 經濟 展望

■ 세계 경기 상승세 지속

- 96년 세계 경기는 3% 내외, 97년은 이보다 높은 3~4%대의 성장세 유지
- 지역별로는 선진국 경기의 동반 상승 추세, 중남미 경기 회복, 아시아 경기의 연착륙이 예상됨
 - 미국은 내수 부문의 호조로 97년에는 2%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일본도 저금리와 엔저 효과로 2~3%의 견실한 성장 예상
 - 중남미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로 인한 투자 증가로 3~5%의 성장 예상
 - 아시아 지역은 각국의 안정 성장을 위한 금융 긴축으로 성장률이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

<세계 경제 성장률>

(%)

	1993	1994	1995	1996	1997	
				WEFA	DRI	WEFA
전세계	1.6	2.7	2.7	3.4	3.2	4.2
선진국	0.8	2.7	2.1	2.1	2.6	2.6
아시아신흥국	6.5	7.6	7.8	7.0	6.0	7.1
중국	13.4	11.8	10.2	9.2	-	9.5
중남미	3.5	5.1	0.6	3.3	4.6	4.9
구소련·동구	-11.6	-15.2	-4.5	2.2	-	6.5

자료 :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96년 2/4분기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 5.

■ 세계 교역은 97년부터 소폭 회복

- 96년에는 유럽의 경기 부진과 아시아권의 경기 둔화에 의한 수출 부진으로 세계 교역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그러나 97년에는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에서 전반적인 교역 증가 예상
 - 96년 하반기 이후 유럽 경기 회복 예상
 - 지역 블록의 광역화로 인한 자유 무역 확산 예상

<세계 교역 증가율>

(%)

	1993	1994	1995	1996	1997
전세계	4.1	9.9	8.8	6.4	7.6
선진국	2.1	9.1	7.8	5.4	6.9
아시아신흥국	11.0	13.8	14.0	9.5	9.5
중남미	5.7	7.8	15.2	7.6	8.0

자료 :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96년 2/4분기

주 : 실질 수출(물량 기준) 증가율임

■ 세계 금리 상승세 전망

- 상반기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금리는 완만한 상승세
- 미국과 일본 경기의 회복세가 원인
- 이에 따라 97년말에는 96년의 5%대에서 6%대로 상승 전망

■ 엔/달러 환율 불투명

- 주요 전망 기관간에 일본의 경상수지에 대한 시각차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 WEFA는 97년말 엔/달러 환율 113엔, DRI는 103엔
- 그러나 최근 선진국간에 달러화의 적정 수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달러화의 대폭적인 절하나 절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 96년말 106엔대, 97년말에는 103~107엔대를 유지할 전망

Ⅲ. 國內 經濟 展望

96년 하반기

■ 96년 하반기 경기 위축 국면 지속

- 하반기에도 국내 경제 성장률은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상반기의 7.3%보다 낮은 7.0% 수준이 될 전망
- 엔저 영향과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 하락 현상의 지속으로 수출 부진

- 투자 역시 지난 94, 95년의 생산 능력 확대와 재고 누적에 의해 증가세 약화 현상 지속
- 소비는 경기 둔화로 증가세 약화

■ 경상수지 적자 폭 축소

-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강에 의한 수입 수요 감소로 적자 폭 축소
- 무역외수지는 큰 폭의 적자세가 유지될 전망
- 이에 따라 96년 전체로는 경상수지 적자가 113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 물가와 금리 상승

- 소비자 물가는 공공 요금 인상 등에 의한 물가 상승 요인의 상존에 의해 연간 4.9~5.0% 수준을 기록할 전망
- 금리는 경기 하강에 따르는 재고 누적에 의한 기업 자금 사정 악화로 상승세

■ 원화 환율 절상 반전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적자 폭 축소와 자본 유입의 확대에 의해 절상세로 반전 하여 연말에는 78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97년

■ 97년 국내 경제는 6.9~7.2%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국내 경제는 수출 부진 양상이 개선되고 SOC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 활동이 활성화 될 경우에, 97년 하반기부터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여 96년과 유사한 7.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그러나 일본 경기의 회복 미흡으로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국내 경제 여건이 불투명하여 투자 계획의 추진이 미약할 경우에는 97년 경제 성장률은 6%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음

■ 경상 수지 적자 개선

- 수출 회복, 수입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는 96년보다 소폭 개선된 85~10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수출은 세계 경기 회복과 엔저 현상의 약화 전망에 의해 96년보다는 증가세가 소폭이나마 상승할 전망
- 수입은 경기 둔화 지속에 의한 수입 수요 감퇴로 증가세가 약화
- 무역외수지는 OECD 가입 등에 의한 대외 개방 확대에 의해 대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큰 폭의 적자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시중 금리 하락

- 한편 국내 시중 금리는 경기 침체에 의한 자금 수요 증가 요인의 약화와 상대적인 물가 안정 그리고 정부의 금리 하향 의지에 의해 97년엔 10%대로 하락할 전망

■ 원/달러 환율 절상

- 원화 환율은 엔저 현상의 약화와 대외 개방 확대에 의한 외국 자본 유입 증대로 절상세가 유지되어 97년말에는 달러당 770~780원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 물가 다소 안정

- 원유 및 곡물가 등 국제 원자재가의 안정에 힘입어 97년 물가는 96년보다 다소 안정될 전망이다
-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공공 요금 인상 압력과 서비스 산업 낙후에 의한 만성적인 서비스 부문 가격의 인상 압력에 의해 서비스 물가는 6%대, 전체 물가는 4.3~4.6%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IV. 示唆點과 政策 課題

■ 세계 경기의 상승세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호전될 전망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출 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임
- 가격 경쟁력이 보전되면 수출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 수출 상품의 경쟁력 강화 전략 필요
 - 환율의 적정 수준 유지, 금리 하향 안정화 정책 지속
- 輸出立國에 기초한 수출 전략 강화
 - 중화학공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산업별 전략 추진
 - 첨단 산업 중심의 이상향적 산업 정책보다는 현재의 국가 기간 산업과 미래 유망 산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산업 전략 마련
 - 특히 현재 우리의 국가 기간 산업을 세계적 수준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 필요

■ 대외 개방에 따르는 구조 조정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 추진

- 노사간 경제 논리에 기초한 생산적 관계 정립
- 국민 소비 성향의 건전화 유도
-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경제 정책 연계성 강화
-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르는 거시 경제 운영상 문제점 해소 방안 강구
- 재정의 경기 조절 정책 활성화

< 거시 경제 지표 추이 및 경제 전망(잠정) >

(억달러,%)

	1995년			1996년			1997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내총생산	9.8	8.2	9.0	7.3	7.0	7.2	6.9~7.2	
민간소비	8.4	7.5	7.9	7.4	7.2	7.3	6.8~7.1	
설비투자	21.5	11.1	15.9	5.2	7.0	6.1	6.0~7.0	
경상수지	-59.9	-28.3	-88.2	-92	-21	-113	-85~-105	
무역수지	-44	-4	-48	-53	-7	-60	-45~-55	
수출입차	-71	-30	-101	-79	-39	-118	-87~-106	
수출(통관)	582	668	1,250	651	715	1,366	1,489~1,516	
(증가율)	(33.2)	(27.8)	(30.3)	(11.8)	(7.0)	(9.2)	(9.0~11.0)	
수입(통관)	653	698	1,351	730	754	1,484	1,595~1,603	
(증가율)	(37.8)	(27.0)	(32.0)	(12.1)	(8.0)	(9.8)	(7.5~8.0)	
소비자물가	3.1	4.7	4.7	3.8	4.9~5.0	4.9~5.0	4.3~4.6	
회사채수익률	14.7	11.9	11.9	11.7	12.0	12.0	10.5~11.0	
환율	원/달러	758.1	774.7	774.7	810.6	780.0	780.0	770~785
	엔/달러	84.8	102.7	102.7	109.8	106.0	106.0	103~107

주: 환율과 금리는 기간말 기준, 소비자 물가는 전년말 대비 증가율임

I. 국내 경기 개관과 평가

1. 96년 상반기 경기

96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경기 하락 및 총체적 부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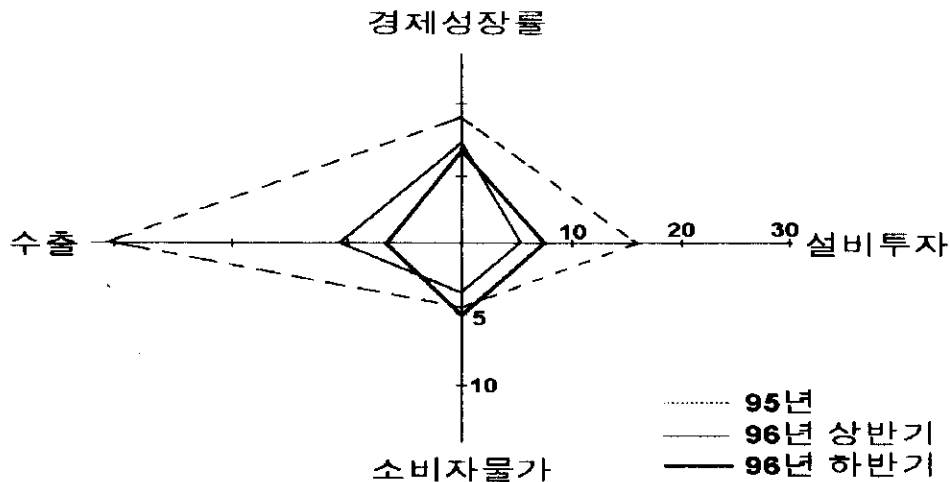
○ 96년 상반기 국내 경제는 성장 둔화, 수출과 투자 증가세 둔화, 높은 물가 상승이라는 총체적인 부진 양상을 나타냄

- 95년 상반기에 비해 96년 상반기의 실적 부진
 - 성장률은 9.8%에서 7.3%로 하락
 - 민간소비가 8.4%에서 7.4%로 증가율이 둔화
 - 수출은 33.2%에서 11.8%로 증가율이 급속히 하락
 - 경상수지 적자는 59.9억 달러에서 92억 달러로 급증
 - 설비투자 역시 21.5%에서 5%대로 급락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상반기의 3.1%보다 0.7%포인트 높은 3.8%를 기록

○ 경기 순환상으로 볼 때 상반기 국내 경기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수출과 투자 부진이 급변 경기 침체의 주요인으로 작용

< 주요 경제 지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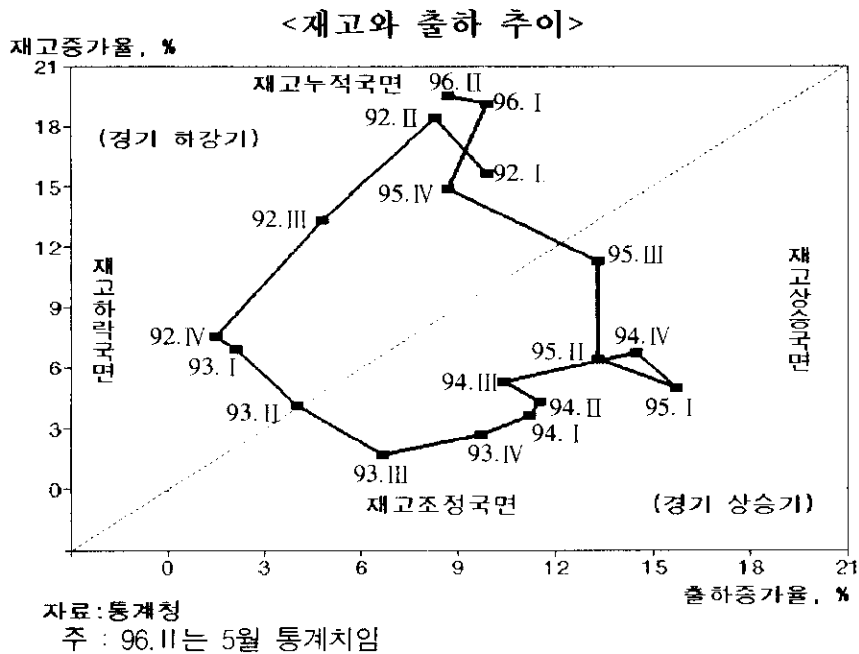
2. 경기 평가

(1) 재고 경기 순환

재고 변동을 근거로 할 때 경기는 전형적인 하강 국면임

○ 재고 변동에 의한 경기 순환 추이로 볼 때 국내 경기는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금번 경기 순환의 경기 정점으로 판단되는 95년 3/4분기까지는 출하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보다 높았음
- 그러나 95년 4/4분기부터 재고가 급증하여 재고 증가율이 출하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
- 특히 96년 1/4분기에는 재고가 급등하고 향후 출하 증가세도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 활동 역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재고 하락 국면을 경유하여 경기 상승 국면으로 재진입하는 데는 대략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97년 상반기까지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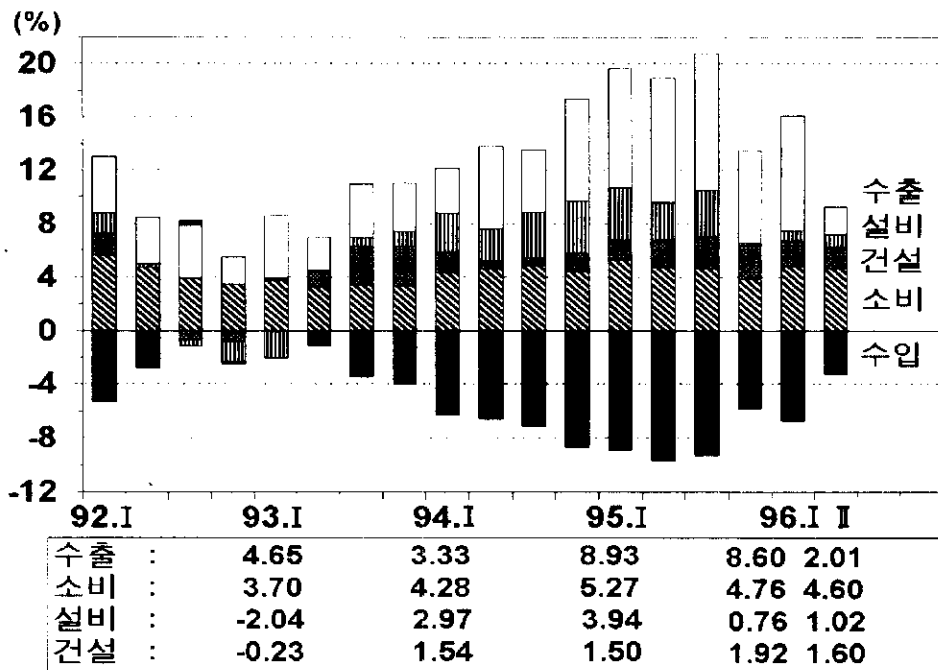
(2) 성장 기여도 추이

투자과 수출 부진,
소비 위주의 성장 패
턴

○ 국내 경제 부문별 성장 기여도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국내 경기는 내수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요 부문별 경제 성장 기여도 추이를 보면 95년 하반기부터 수출과 설비투자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반면, 민간소비가 높은 기여도를 유지하고 있고 건설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소비와 건설투자 위주의 성장 패턴은 대선을 의식한 정부의 공공투자 증가에 의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현상은 경제 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운영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수요 부문별 성장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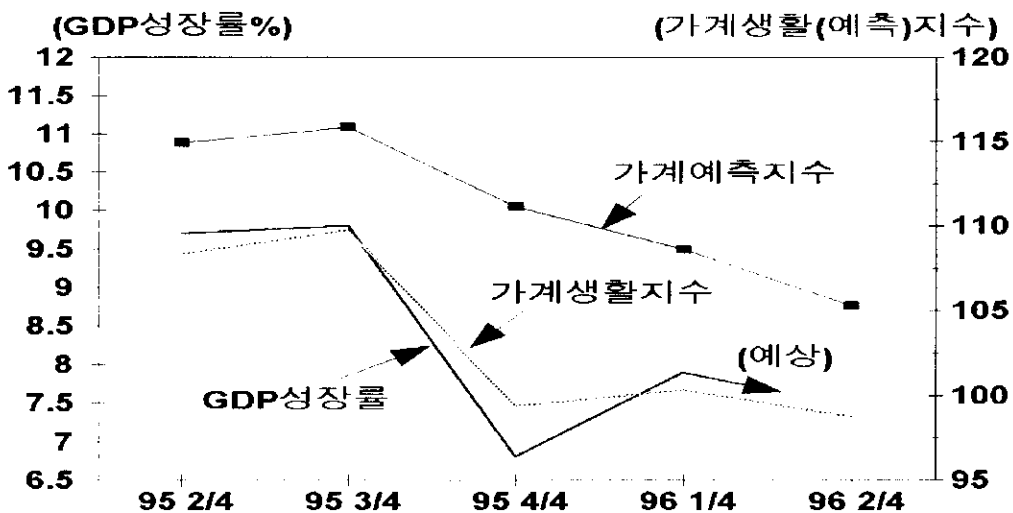


(3) 경기 체감 지수

국민의 체감 경기는 ○ 경기 체감 정도를 나타내 주는 가계 생활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경기 체감 정도를 나타내 주는 가계 생활 지수가 95년 3/4분기 이후 크게 낮아짐
- (가계생활지수) 전국 성인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 소득, 소비에 대한 과거 평가 및 예측을 전화 설문하여 수치화한 것임
- (가계예측지수) 가계생활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미래에 대한 예측에 관련된 부분만을 종합하여 수치화한 것임
- (추이) 가계생활지수는 GDP 성장률의 움직임과 동행하고 있음
- (특징) 96년 6월에는 95년 6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에 이르러 현재 경기 하강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함
- (향후경기) 최근 경기예측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체감 경기의 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의 체감 경기와 경제 지표 >



II. 해외 경제 전망

1. 세계 경제 개관

(1) 세계 경기 총괄

96년 상반기 미일, 중남미 경제 회복, 유럽 부진

○ 96년 상반기 세계 경기의 특징은 美日, 중남미 경기의 회복세와 유럽 경기의 부진에 있음

○ 96년 하반기 이후 97년까지 선진국 경기의 동반 상승 추세, 중남미 경기 회복, 아시아 경기의 연착륙이 예상됨

- 96년 세계 경기는 3% 내외, 97년은 이보다 높은 3~4%대의 성장세 유지 예상

<세계 경기 특징>

		95년 → 96년 상반기	96년 하반기 → 97년
미국	경기	경기 하강 후 연착륙	2%대의 잠재 성장률 유지
	특징적 지표	고용 증대	민간 소비 증대 예상
일본	경기	경기 침체 후 회복세	건실한 성장 지속 예상
	특징적 지표	정부 지출, 투자 증대	소비와 수출 호조 예상
독일	경기	경기 부진 지속	경기 회복세
	특징적 지표	수출 증가율 감소	수출 회복 예상
아시아 (중국)	경기	연착륙 단계	중국 8~9%대, 아시아는 7% 내외의 성장률 유지
	특징적 지표	소비자 물가 안정세	10%내외 물가 상승률
중남미 (멕시코)	경기	경기 급강하 후 회복세	회복세 지속
	특징적 지표	소비자 물가 상승세	외채 확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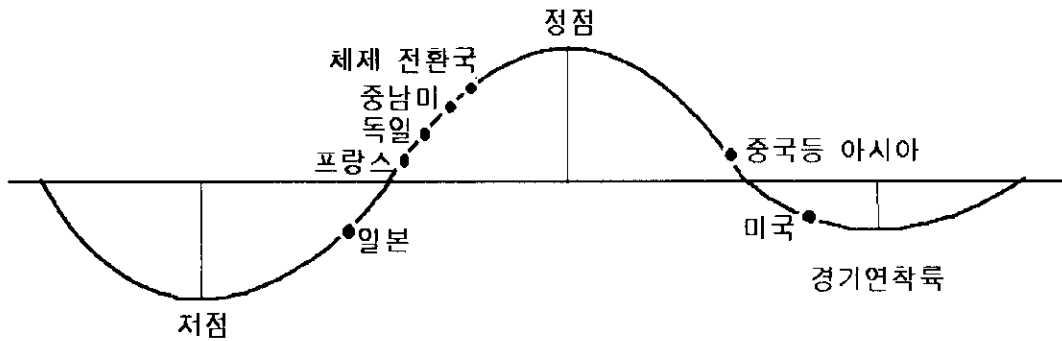
○ 세계 경기 순환 주기상 미국은 경기 하강기에서 연착륙에 성공한 후 상승기로의 조정 국면에 있음

- 일본과 유럽 경기는 침체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이동 중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기는 경기 하강기에서 연

- 착륙 중
- 중남미와 체제 전환국은 본격적인 경기 상승 국면에 있음

<세계 주요국의 경기 순환상 위치>



96년 세계 경제 성장률 3%, 97년 4% 내외

○ 9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96년의 3% 수준보다 다소 높은 4% 내외가 될 전망이다

- 선진국, 중남미, 체제 전환국 경제가 상승세를 띠는 데 비해 아시아 국가들은 연착륙 기조를 유지

<세계 경제 실질 성장률>

	1993	1994	1995	1997 (%)			교역 비중 (%)
				1996 WEFA	DRI	WEFA	
전세계	1.6	2.7	2.7	3.4	3.2	4.2	100
선진국	0.8	2.7	2.1	2.1	2.6	2.6	49.9
아시아신흥국	6.5	7.6	7.8	7.0	6.0	7.1	14.3
중국	13.4	11.8	10.2	9.2	-	9.5	7.3
중남미	3.5	5.1	0.6	3.3	4.6	4.9	5.9
구소련·동구	-11.6	-15.2	-4.5	2.2	-	6.5	3.3

자료 :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96년 2/4분기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 5

주 : 교역 비중은 95년 국내 총수출에 대한 각 지역의 수출 비중임, 아시아 신흥국은 ASEAN 기준임

(2) 세계 교역

97년 세계 교역 증가
율 소폭 회복 예상

○ 세계 교역 증가율은 96년에 둔화된 후 97년에는
소폭 회복 전망

- 96년의 교역 둔화 원인
 - 유럽의 경기 부진
 - 아시아권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 97년에는 소폭 회복 전망
 -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중남미를 중
심으로 한 개도국에서 전반적인 교역 증가 예상
- 교역 증가 예상의 원인
 - 96년 하반기 이후 유럽 경기 회복 예상
 - 지역블록의 광역화로 인한 자유 무역 확산 예상
- 그러나 자국 이익 위주의 선진국 대외 정책, 세계
무역 구조의 서비스 위주로의 재편 등으로 교역의
대폭적인 증가는 힘들 듯

<세계 교역 증가율>

(%)

	1993	1994	1995	1996	1997
전세계	4.1	9.9	8.8	6.4	7.6
선진국	2.1	9.1	7.8	5.4	6.9
미국	3.5	10.1	10.8	6.7	6.5
일본	-2.4	1.8	3.6	5.7	9.3
EU	1.7	9.8	7.6	4.6	6.7
독일	-4.9	9.6	3.9	5.4	7.7
아시아신흥국	11.0	13.8	14.0	9.5	9.5
중남미	5.7	7.8	15.2	7.6	8.0

자료 :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96년 2/4분기

주 : 실질 수출(물량 기준) 증가율임

2. 국별 경기

(1) 미국

96~97년 미국 2%
내외 성장 유지

○ 미국은 96년과 97년에 잠재 성장률인 2% 내외의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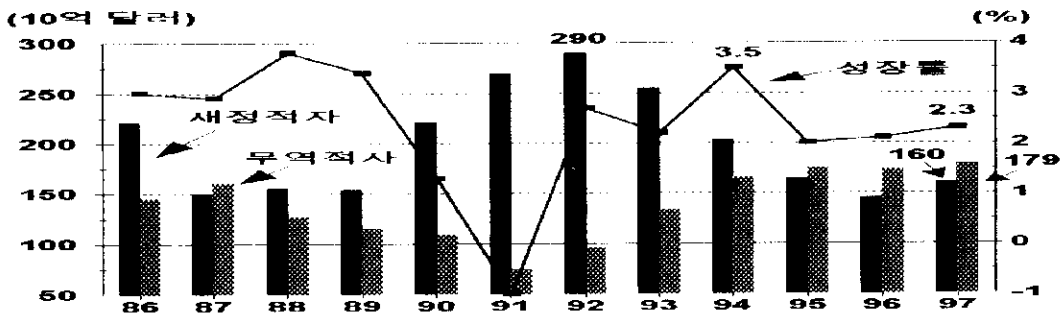
- 96년 상반기에는 고용·소비 증대로 2.3~2.5% 성장 추정
- 하반기에는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효과의 가시화로 경기가 다소 하강할 것으로 예상
- 상반기의 경기 호조로 96년에는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97년 미국 경제는 연착륙 후 경기 상승 국면으로 재진입하여 내수 부문의 증가에 힘입어 2% 이상의 성장 예상

재정적자·무역적자가
걸림돌

○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 경제의 걸림돌로 상존

- 재정적자는 92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절대액 규모는 높은 수준(96년 GDP의 1.9% 수준)
- 무역수지 적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96년 GDP의 2.3% 수준)
- 쌍둥이 적자를 감축하려는 과정에서 문제점 노출 예상
 - 재정적자의 감축으로 재정 정책의 경기 조절 기능 상실
 - 무역적자 축소 노력은 韓·日·中國과 통상 마찰 가능성

<미국의 재정적자, 무역수지 적자와 경제 성장률 전망>



자료 :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1996년 2/4분기
 Financial Times, *Currency Forecaster*, 1996. 6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 5

(2) 일본

96~97년 일본 2~3%대의 건실한 성장 예상

- 일본은 96년과 97년에 2~3%대의 건실한 성장 전망
 - 96년 상반기에는 공공 투자 증대로 경기 회복기에 들어섬
 - 하반기에는 민간 소비와 수출 증대로 성장세 지속 예상
 - 96~97년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건실한 성장 전망
 - 상대적 저금리, 엔저 효과의 가시화 등이 원인

구조적인 부실 금융 채권과 재정 수지 악화가 문제

-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인 부실 채권 문제와 재정 수지 악화가 경제 회복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부실 채권 문제는 금융 기관의 파탄과 재정 적자를 유도해 일본 경제의 회복에 장애로 작용할 것임
 - 부실 채권의 근원지인 주택 금융 전문 회사들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액수는 총 13조엔에 달함
 - 부실 채권에 의한 주요 금융 기관의 도산은 일반 기업의 도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
 - 일본 정부가 95년에 들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채 신규 발행을 크게 늘려 재정 적자 확대
 - 이는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일본의 주요 경제 지표>

(%)

	95	96		97	
		DRI	WEFA	DRI	WEFA
실질 GDP성장률	0.7	2.5	2.6	3.5	3.6
실업률	3.2	3.2	3.3	3.2	3.2
소비자물가	-0.1	-0.2	0.2	-0.1	1.3
재정수지/GDP	-4.46	-4.54	-1.80	-3.51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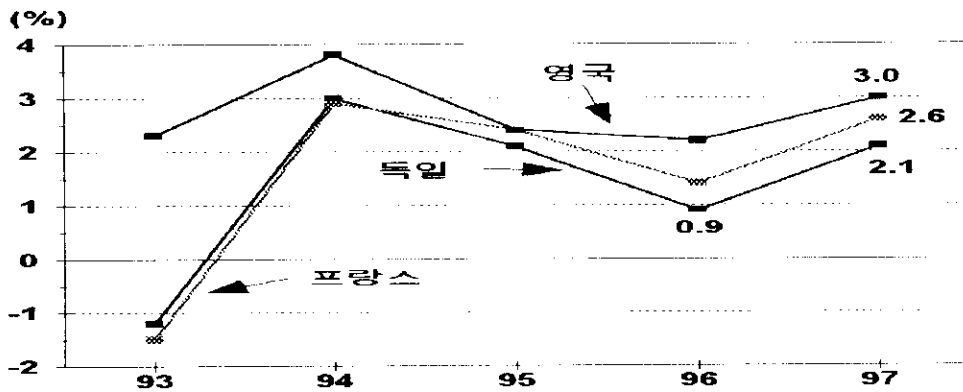
자료 :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96년 2/4분기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 5

(3) 유럽

유럽 97년에 2~3%의 성장률 회복

- 96년에 부진한 성장률이 예상되는 유럽 경기는 97년에는 2~3%대의 성장률로 회복될 것이 전망됨
- 97년에는 2~3%대의 성장세가 예상
- 저금리와 마르크화 평가 절하가 경기 회복 요인으로 작용

<유럽 주요국 실질 GDP 전망>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5

- 유럽 통화 통합 조건 중 재정 건실화 조건 충족이 경기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유럽 주요국들의 실업률과 통화 통합 조건 전망>

	실업률		재정수지/GDP		총부채/GDP		인플레이션	
	1996	1997	1996	1997	1996	1997	1996	1997
통합조건	-	-	-3.0	-3.0	60.0	60.0	2.8	3.2
독일	9.6	9.9	-3.7	-3.0	59.8	59.7	1.6	2.0
프랑스	11.9	11.4	-4.4	-3.4	53.5	54.1	2.2	2.1
영국	7.7	7.0	-4.3	-3.1	55.6	55.1	2.3	2.2

자료 : Financial Times, Currency Forecaster, 1996. 6

- 주 : 1)재정수지/GDP의 (-)는 재정적자를 의미
- 2)음영 부분은 특정국이 특정 항목의 통화 통합 조건을 충족시킴을 의미함

(4) 중국

중국 경제 9% 대로
성장률 둔화 전망

○ 96년 중국 경제는 긴축 정책에 의해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해도 9%대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3년 하반기 이후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이전보다 낮은 11%대가 예상

○ 對中 수출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재 수입 규제로 컬러 TV, 자전거의 對中 수출 부진 예상
-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부품, 직접회로 등의 對中 수출 증대 예상
- 관세 인하 및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쿼터 철폐 때문임
- 97년 7월로 예정된 홍콩의 중국 귀속 이후 「中華經濟圈」 태동 가능성은 보다 긴밀한 對中 관계 설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95년 한국의 對中 수출 의존도는 7.3%로 상승 추세
- 홍콩을 포함한 수출 의존도는 약 15.6%에 달함

< 중국 경제 전망 >

	1993	1994	1995	1996	1997
실질 GDP 성장률(%)	13.4	11.8	10.2	9.2	9.5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2	21.7	14.8	11.2	11.9
무역수지(10억 달러)	-10.7	7.3	17.7	10.6	9.3
경상수지(10억 달러)	-11.7	6.5	15.5	8.4	6.8
외채(10억 달러)	80.3	92.8	100.8	108.1	114.0
對달러 환율	6.0	9.0	8.0	8.2	8.3
우리나라 총수출의 對중국 수출 비중(%)	6.3	6.5	7.3	-	-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96, 5

(5) 동남아

7~8%대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

○ 대부분 국가가 연착륙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97
년에도 7~8%대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 경제 구조 개편 노력의 결과
- 역내 교역 활성화로 회원국간의 자원 배분 효율성 증대

○ 장기적 성장을 위한 과제

- 경제 구조의 고도화와 선진국형 물가 안정 속의 성장이라는 안정적 경제 기반 구축
- 경상수지 적자 축소

○ 무역 적자 증대로 對韓 시장 개방 압력이 가중
될 전망

- ASEAN은 회원국 상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부과, 관세 인하 및 각종 수입 쿼터의 완화를 요구
- 95년 한국의 對ASEAN 수출 비중은 14.3%, 한국의 對ASEAN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77.8억 달러

<아시아 주요국 경제 전망>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필리핀	실질 GDP 성장률	2.1	4.3	5.1	5.5	5.6
	소비자 물가 상승률	7.6	9.1	8.1	8.6	7.9
	對달러 환율	27.1	26.4	25.7	26.5	27.7
말레이 시아	실질 GDP 성장률	8.5	9.2	9.6	8.7	8.3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	3.7	3.5	3.7	3.9
	對달러 환율	2.6	2.6	2.5	2.5	2.5
태국	실질 GDP 성장률	8.3	8.8	8.6	8.1	8.3
	소비자 물가 상승률	3.8	4.7	5.8	5.5	5.4
	對달러 환율	25.5	25.3	25.2	25.4	25.6
인도네 시아	실질 GDP 성장률	6.5	7.3	7.3	7.2	7.0
	소비자 물가 상승률	9.2	8.5	9.4	9.1	8.9
	對달러 환율	2087.1	2160.8	2248.6	2394.8	2507.3
우리나라	총수출의 對동남아 수출 비중(%)	22.9	24.2	25.7	-	-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96. 5

(6) 중남미

중남미 경제 5% 내
외의 성장률로 회복
전망

- 95년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한 중남미 국가들은 향후 2~3년간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적극적인 외자 유치로 인한 투자 증가가 경기 회복을 견인할 듯
 - 잇단 선거로 인한 정치 불안정과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환율, 누적된 외채 등의 경제 구조 불안정은 상존

금융 구조의 안정과
재정적자 축소 노력
이 필요

- 중남미권에서는 물가 안정 등 경제적 안정을 통한 금융 구조의 안정과 재정적자 축소 노력이 필요함
 - 경제 구조 안정을 통해 단기성 핫머니보다는 장기적인 외국계 투자를 유치하여야 할 것임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입 억제에 예상
 -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의 한국산 자동차와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움직임
 - 95년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 의존도는 5.9%

<중남미 경제 전망>

		1993	1994	1995	1996	1997
아르헨 티나	실질 GDP 성장률	6.0	7.4	-3.5	2.9	4.5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6	4.2	3.7	0.4	2.7
	對달러 환율	1.00	1.00	1.00	1.00	1.00
멕시코	실질 GDP 성장률	0.6	3.5	-6.9	2.8	4.5
	소비자 물가 상승률	9.8	7.0	35.0	35.7	21.7
	對달러 환율	3.11	3.37	6.41	8.00	9.51
브라질	실질 GDP 성장률	4.2	5.7	4.2	3.7	5.5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20.41	2502.84	76.82	20.69	14.85
	對달러 환율	0.032	0.639	0.918	1.085	1.259
우리나라 총수출의 對중남미 수출 비중(%)		6.0	6.7	5.9	-	-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 5

(7) 체제 전환국

동구 경제 5% 내외의 성장 예상

- 동구 경제는 금년부터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됨
- 러시아 경제는 97년에 4%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97년 1월에 출범될 中유럽 自由貿易地帶(CEFTA)의 영향으로 인한 역내 교역의 활성화가 성장을 견인할 듯

지속적인 대외 개방과 정치·사회 안정이 성장의 관건

-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정치 사회적인 안정이 경제 성장의 과제임
- 불가리아 등 경제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통화 가치의 하락과 외환 부족 사태와 같은 경제 불안 가중
- 對韓 무역적자가 커지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
- 96년 1/4분기 동구와 러시아의 對韓 무역 적자액은 4.7억 달러
- 이미 러시아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와 섬유제품에 대한 일반 특혜관세 폐지

<체제 전환국 경제 전망>

		1995	1996	1997
러시아	실질 GDP 성장률	-3.0	1.0	4.0
	소비자 물가 상승률	140.0	70.0	50.0
	對달러 환율	4,900	6,000	9,000
폴란드	실질 GDP 성장률	6.0	6.0	5.5
	소비자 물가 상승률	26.0	19	16
	對달러 환율	2.6	2.8	3.2
체코	실질 GDP 성장률	4.0	5.4	5.6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0	8	7
	對달러 환율	26	26	24
헝가리	실질 GDP 성장률	1.0	2.0	3.0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	22	17
	對달러 환율	136	155	174
우리나라	총수출의 對체제 전환국 수출 비중(%)	3.3	-	-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 5

3. 국제 금융 및 원유·원자재가

(1) 국제 금리

96~97년 국제 금리
상승세 전망

- 96년에 선진국 금리는 상승세 전망
 - 상반기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금리는 완만한 상승세
 - 미국과 일본 경기의 회복세가 원인

- 美日 양국 금리는 97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미국은 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음
 - 소비와 고용의 호조 등으로 건실한 성장이 전망 되기 때문임
 - 현재 5.25%인 연방기금 목표 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제기
 - 일본도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될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
 - 높은 실업률과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 문제로 인하여 일본 정부는 0.5%인 재할인율등 정책 금리 인상을 연기하고 있음
 - 그러나 소비 호조세의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하반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상 논의가 제기될 것임

<국제 금리 추이 및 전망>

(기말기준, %)

	94	95	96				9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연간
				FT	JM		FT	JM	
유로달러	6.50	5.63	5.58	5.75	6.15	5.40	6.13	6.25	6.20
미국국채	7.82	5.56	6.67	6.95	7.25	-	7.15	7.15	-
유로엔	2.44	0.48	0.60	1.25	0.80	0.70	1.75	1.70	1.50
일본국채	4.59	2.90	3.22	3.55	3.40	3.30	4.00	3.80	3.90

자료 : Financial Times(FT), *Currency Forecaster*, 1996. 6
 JP Morgan(JM), *U.S. Fixed Income Markets*, 1996. 6
 NIESR,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1996. 5

주 : 1) NIESR의 전망치는 연간 평균치임
 2) 유로금리는 3개월물이며 국채금리는 10년물임

(2) 국제 환율

엔/달러 환율 전망
불투명

- 96년 상반기에 달러화는 엔화와 마르크화에 대해 강세 지속
 - 미일간 금리차,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 독일의 경기 부진 등이 달러화 강세의 주요인

- 하반기 이후 엔/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은 전망기관별로 엇갈리고 있음
 - 엔/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은 일본의 경상수지에 대한 시각차로 큰 차이를 보임
 - DRI는 엔低의 효과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재확대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96년 585억 달러 → 97년 639억 달러)
 - WEFA는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재확대되지 않아서 달러화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96년 588억 달러 → 97년 591억 달러)

대폭적인 절하나 절상은 어려울 전망

- 그러나 최근 선진국간에 달러화의 적정 수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달러화의 대폭적인 절하나 절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의 경상수지 추이 및 전망> (단위: 10억 달러)

	95	96		97	
		DRI	WEFA	DRI	WEFA
경상수지	111.6	58.5	58.8	63.9	59.1

<국제 환율 추이 및 전망> (기말 기준)

	94	95	96			97	
			상반기	하반기		DRI	WEFA
				DRI	WEFA		
엔/달러	99.6	102.7	109.8	106.0	108.0	103.0	113.0
마르크/달러	1.55	1.44	1.52	1.48	1.58	1.49	1.63

자료 :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96년 2/4분기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 5

주 : DRI의 전망치는 연평균 기준임

(3) 국제 원유·원자재가

96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 안정 예상

- 96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 수급 구조상 3/4분기부터 초과 공급 예상
 - 최근 이라크産 원유 수출 재개
 - OPEC의 통제력 약화로 장기적으로도 안정세 유지
 - 최근 원유 減産을 위한 OPEC 총회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으로써 과잉 공급 가능성이 상존

국제 곡물 가격 안정, 비철금속 가격 불안정

- 국제 곡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비철금속 가격은 다소 불안정할 전망
 - 96년에 들어 상승세를 보인 국제 곡물가는 97년에 안정세가 예상됨
 - 유럽에서 休耕 비율 규제를 완화하여 경작 면적이 증가
 - 중국이 옥수수를 중심으로 곡물 수출 재개
 - 97년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비철금속 가격은 다소 불안정
 - 재고가 크게 부족한 납, 니켈 등 일부 비철금속의 가격 강세

<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및 전망 >

(기간 평균)

		1994	1995	1996	1997
유가 (달러/배럴)	D R I	15.3	16.8	16.2	15.6
	WEFA	15.9	17.2	17.0	17.8
	NIESER	16.6	16.6	17.7	17.3
원자재가 (%)	D R I ¹⁾	12.4	8.5	-2.7	-1.3
	NIESER(A) ²⁾	9.4	9.3	-8.5	-8.3
	NIESER(B) ³⁾	13.3	20.1	-8.8	-2.8

자료 : DRI, World Market Executive Overview, 96년 2/4분기
 WEFA, World Economic Outlook, 96년 5월
 NIESER,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96년 5월

주 : 1) 비석유 원자재 가격
 2) 공업용 농산물 가격
 3) 비철금속 가격

Ⅲ. 국내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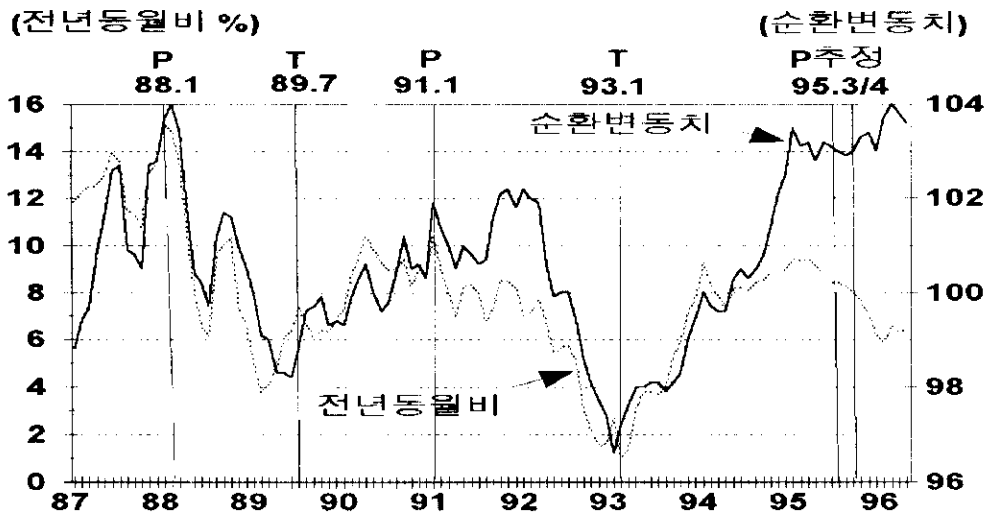
1. 국내 경제 개관

(1) 경기 정점 및 저점 평가

95년 3/4분기 정점 이후 경기 지속적 하강세

- 경기는 95년 3/4분기를 정점으로 하강세를 지속하고 있음
-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95년 1월 이후 경기의 변동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추세치를 제거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순환 변동치를 대체할 수 있는 전년 동월비를 사용하여 경기의 흐름을 추정함
- 그 결과, 경기 정점은 늦어도 95년 3/4분기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경기는 전형적인 하강 국면임

< 동행 종합 지수의 추이 >



	94 4/4	95 1/4	95 2/4	95 3/4	95 4/4	96 1/4
GDP성장률(전년동기비)	9.4	10.0	9.7	9.8	6.8	7.9
경기 국면(추정)		상승		정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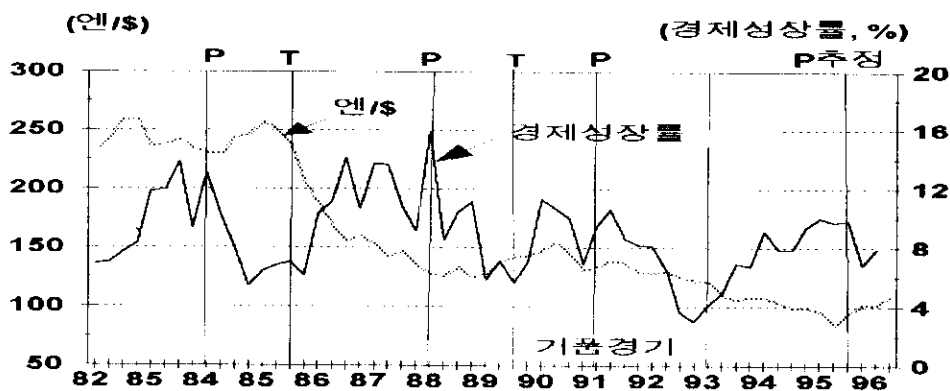
97년 1/4분기 저점을 이룰 것으로 추정

- 경기 정점이 95년 3/4분기로 추정됨에 따라 경기 저점은 97년 1/4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수축 국면은 거품 경기가 나타났던 제 5 순환을 제외하고는 약 16~19개월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경기 저점은 빠르면 96년 4/4분기, 늦어도 97년 2/4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경기 저점은 우리 경제가 엔저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시점일 것임
- 89~93년의 거품 경기 기간을 제외하고 엔/달러 환율과 경제 성장률은 역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엔저 현상은 96년 3/4분기부터 반전될 것으로 예측됨
- 엔화 환율 변동의 영향이 약 3~4개월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면 97년 1/4분기에는 엔저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나라의 경기 순환 >

	저점	→ 정점	→ 저점	확장기간	수축기간
제 1 순환	73.3	74.2	75.6	23개월	16개월
제 2 순환	75.6	79.2	80.9	44개월	19개월
제 3 순환	80.9	84.2	85.9	41개월	19개월
제 4 순환	85.9	88.1	89.7	28개월	18개월
제 5 순환	89.7	91.1	93.1	18개월	24개월
제6순환(추정)	93.1	95.(3/4)	97(1/4)	32~34개월	16~19개월

<엔화 환율과 경제 성장>



(2) 전망 개요

하반기 경기는 상반기보다
위축될 전망이다

○ 96년 하반기 경기는 상반기보다 위축될 것으로 보임

- 97년 경기는 96년 하반기 경기 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연중으로는 96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 세계 경기의 회복세에 의해 수출 증가율은 9~11% 수준 예상
- 그러나 경기 하강기의 지속에 의해 투자와 소비는 위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거시 경제 지표 추이 및 하반기 경제 전망> (억 달러,%)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내총생산	8.6	9.8	8.2	9.0	7.3	7.0	7.2	6.9~7.2
민간소비	7.6	8.4	7.5	7.9	7.4	7.2	7.3	6.8~7.1
설비투자	23.3	21.5	11.1	15.9	5.2	7.0	6.1	6.0~7.0
경상수지	-45.3	-59.9	-28.3	-88.2	-92	-21	-113	-85~-105
무역수지	-31	-44	-4	-48	-53	-7	-60	-47~-59
수출입차	-63	-71	-30	-101	-79	-39	-118	-87~-106
수출(통관)	960	582	668	1,250	651	715	1,366	1,489~1,516
(증가율)	(16.8)	(33.2)	(27.8)	(30.3)	(11.8)	(7.0)	(9.2)	(9.0~11.0)
수입(통관)	1,023	653	698	1,351	730	754	1,484	1,595~1,603
(증가율)	(22.1)	(37.8)	(27.0)	(32.0)	(12.1)	(8.0)	(9.8)	(7.5~8.0)
소비자물가	5.6	3.1	4.7	4.7	3.8	4.9~5.0	4.9~5.0	4.3~4.6
회사채수익률	14.3	14.7	11.9	11.9	11.7	12.0	12.0	10.5~11.0
환율 원/달러	788.7	758.1	774.7	774.7	810.6	780.0	780.0	770~785
환율 엔/달러	99.8	84.8	102.7	102.7	109.8	106.0	106.0	103~107

주: 국민계정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소비자물가는 전년말대비 증가율, 회사채수익률과 환율은 기말 기준

2. 거시 부문별 전망

(1)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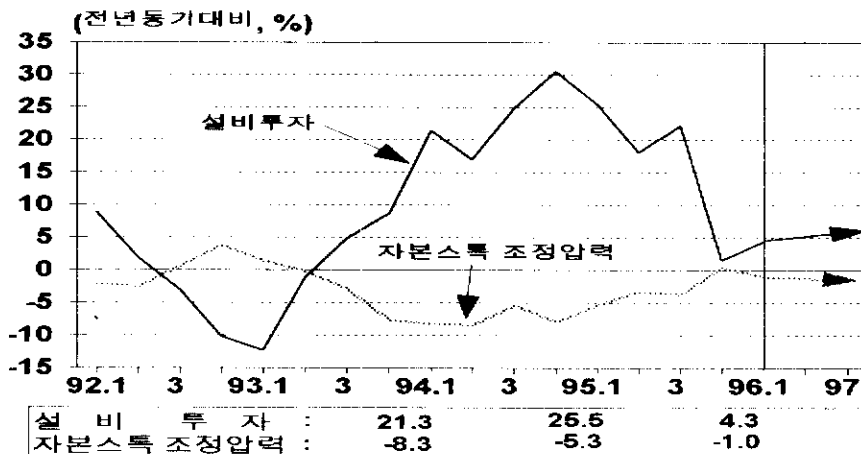
95년 4/4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 급
락

- 자본 스톡 조정 압력이 높아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95년 4/4분기 이후 크게 감소함
 - 92, 93년에 걸쳐 감소세를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93년 이후 (-)의 자본 스톡 조정 압력하에서 94, 95년에는 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
 - 생산능력 확충에 집중되었던 설비투자는 95년 하반기부터 자본 스톡 조정 압력이 상승하면서 증가율이 급격히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냄

설비투자 둔화 97년
상반기까지 지속

- 이러한 설비투자 증가의 둔화세는 97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부진과 경기 하강 지속 예상에 의한 투자 조정 지속
 - 한편 SOC 투자의 민자 유치 규모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건설투자 증가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자본 스톡 조정 압력과 투자 추이>



주 : 자본스톡 조정압력=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증가율 - 제조업 생산 증가율

(2)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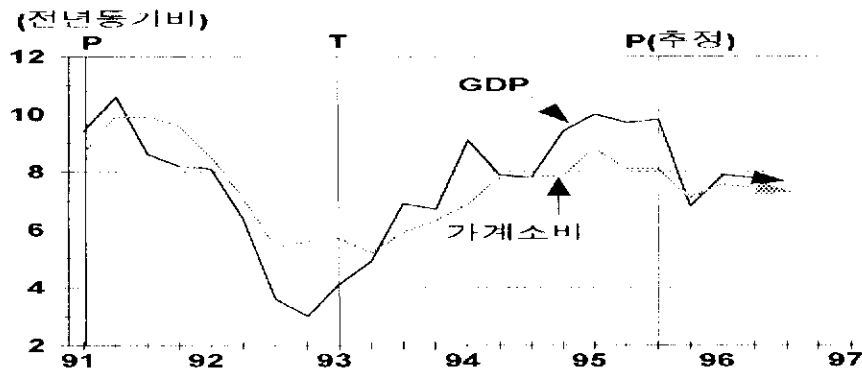
96년 소비 증가율은 GDP 성장률을 다소 상회

- (96년 가계소비) 경기 하강기에는 GDP 성장률을 추월했다가 상승기에는 GDP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음
 - (96년 상반기) 경기 하락의 초기 단계인 관계로서 GDP 성장률이 가계소비지출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뚜렷하지 않음
 - GDP : 7.3 %, 가계 소비 : 7.4 %
 - (96년 하반기) 경기 하강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은 GDP 성장률을 다소 상회할 것임
 - GDP : 7.0 %, 가계 소비 : 7.2 %

97년 소비 증가율은 GDP 성장률과 비슷할 전망

- (97년 가계소비) 97년에 1/4분기에 경기가 저점에 이르렀다가 상승하면서 가계소비는 GDP 성장률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음
 - 경기 연착륙으로 97년 경기 상승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가계소비 증가도 96년 수준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임
 - 상반기 중에는 가계소비가 GDP보다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경기가 상승하는 하반기에는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가계소비는 GDP와 비슷한 연간 약 7.0 % 전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소비자의 체감 경기와 경제 지표 >



(3) 대외거래

96년 1~5월중 경상수지 적자 전년동기비 60% 증가

- 96년에 들어 5월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81.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50.7억 달러에 비해 60% 증가
 - 무역수지 적자는 46.9억 달러로 25.4% 증가
 - 수출 증가율은 주요 수출 제품의 단가 하락으로 4월(6.5%), 5월(7.5%) 계속 한자리 수로 둔화되어 5월말 누계로 14.8% 증가
 - 수입은 고급 소비재 수입의 증가로 5월말 누계로 15.6% 증가
 - 무역외수지 적자는 여행수지가 악화되면서 29.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

96년 하반기 및 97년에도 경상수지 적자 지속 예상

- 96년 하반기에도 경상수지 적자 추세 지속 예상
 - 엔저로 인한 수출 부진과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무역외수지 악화가 계속될 전망
- 97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두드러진 요인이 없어 경상수지 적자는 85~105억 달러에 달할 전망
 - 97년 수출 환경도 96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96년 하반기 및 97년 경상수지 전망>

(억 달러, %)

	1995			1996			199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상수지	-59.9	-28.3	-88.2	-92	-21	-113	-85~-105
수출입차	-71	-30	-101	-79	-39	-118	-87~-106
수출	582	668	1,250	651	715	1,366	1,489~1,516
(증가율)	(33.2)	(27.8)	(30.3)	(11.8)	(7.0)	(9.2)	(9.0~11.0)
수입	653	698	1,351	730	754	1,484	1,595~1,603
(증가율)	(37.8)	(27.0)	(32.0)	(12.1)	(8.0)	(9.8)	(7.5~8.0)
무역외수지	-15.8	-19.3	-35.1	-34.9	-12.5	-47.4	-32~-35

주: 수출, 수입은 통관 기준임

(4) 시중 금리

시중 금리 하반기에
상승세로 반전 전망

○ 96년 시중 금리는 상반기 하향 안정세에서 하반기 상승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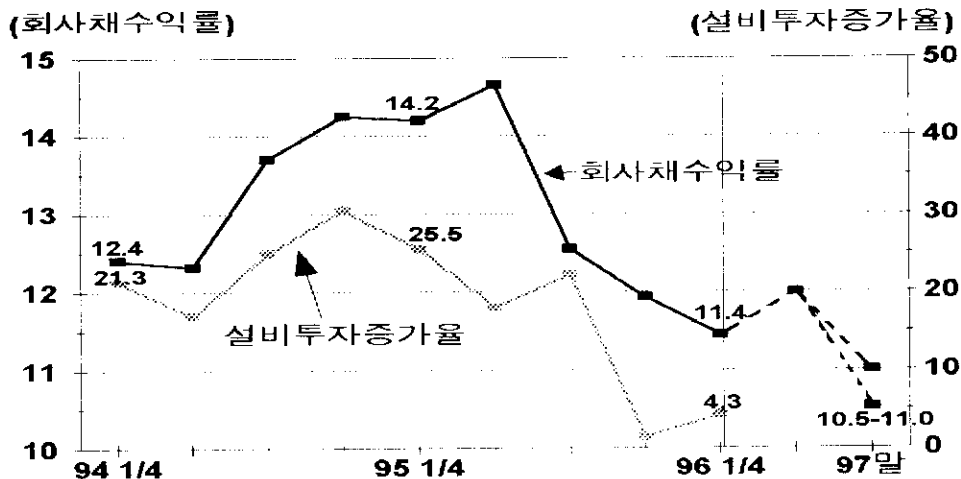
- 상반기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둔화, 시중 자금 사정 호조로 하향 안정
-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수출 둔화와 재고 누증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 신탁제도 개편으로 단기 투자 자금의 채권 시장 이탈
 - 금융 시장 개방 확대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하여 통화 관리 여건 악화

97년 회사채 수익률
10%대로 하락 예상

○ 97년 회사채 수익률은 10.5~11.0%까지 하락 예상

- 경기의 급랭 방지를 위한 정부의 통화 관리 완화 기대
- 급속한 자본 유입을 제어하기 위한 정부의 저금리 정책 지속
- 그러나 하반기 이후 완만한 경기 상승 및 12월 대선 등의 요인으로 시중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중 금리 추이 및 전망>



주: 회사채 수익률은 기말 기준,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5) 원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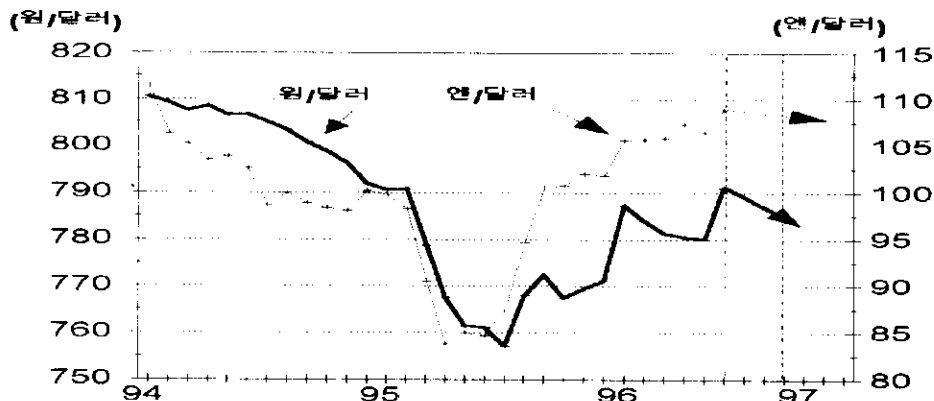
현재 원/달러 환율
급속한 절하 추세

- 96년 5월 하순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급속한 절하 추세로 반전됨
 -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대폭적인 수출 감소에 의한 경상 수지 적자 누증
 - 달러화 강세,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유입액의 둔화 등이 주요인

96 하반기~97년 원/달러 환율 완만한 절상세 전망

- 96년 하반기 이후 97년까지의 원/달러 환율은 완만하나 절상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
 - (절상 요인) 하반기 이후 경상 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자본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SOC 투자에 대한 상업 차관 도입(하반기중) 및 현금 차관(97년중) 허용,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 투자 한도 확대(하반기중 18% → 20%, 약 13억 달러 순유입 예상) 등으로 자본 유입 확대
 - (절하 요인) 그러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달러화 강세가 유지된다면 원/달러 환율의 절상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임
 - 국내외 외환 시장의 연계 강화로 달러화 강세는 국내에서의 달러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촉발하여 원화 약세 초래
 - (종합) 이런 점을 고려하면, 96년 말 원/달러 환율은 780원, 97년에는 770~785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추이>



(6) 물가

96년 물가 95년 수준
다소 상회 예상

○ (96년 물가) 곡물가의 불안으로 95년 수준을 다소 상회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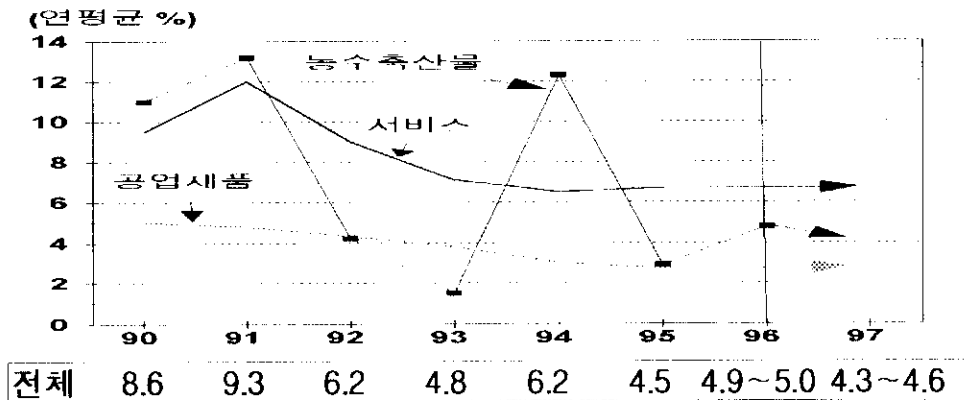
- (상반기) 공공 요금과 개인 서비스가 전체 물가를 주도함
 - 하지만 국제 곡물가 상승과 국내 공급 능력의 한계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이 95년 물가 수준을 상회하는 주요 원인임
 - 1월~6월 물가상승률 : 전년말대비 3.8%, 전년동기대비 5.5%
- (하반기) 공공 요금이 물가 상승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겠지만 농산물의 가격은 출하 시기인 4/4분기에 크게 안정될 것임
 - 7월~12월 물가상승률 : 6월말 대비 1.1~1.2% (추정)

97년 물가는 96년보다 다소 안정 전망

○ (97년 물가) 서비스 물가의 구조적 한계로 전체 물가 상승률은 약 4.3~4.6% 사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농수축산물) 국제 곡물가의 안정에 힘입어 연평균 3%대의 안정된 상승이 예상됨
- (공업제품) 제조업체의 원가 절감 노력과 할인점의 확대와 같은 유통 혁신에 힘입어 2~3% 정도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임
- (서비스) 공공 요금, 등록금 등의 만성적인 상승 압력, 서비스 산업의 낙후 등으로 6.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부문별 물가 상승률 >



(7) 주식 시장

6월 말 연중 최저치 기록, 7월 초에 850p 대에 근접하게 상승

○ 5월 7일 연중 최고치(986.84p)를 기록했던 종합 주가지수는 6월 29일 연중 최저치(817.43p)를 기록한 이후 7월 들어 6일 동안 약 32p 올라 850p 대에 근접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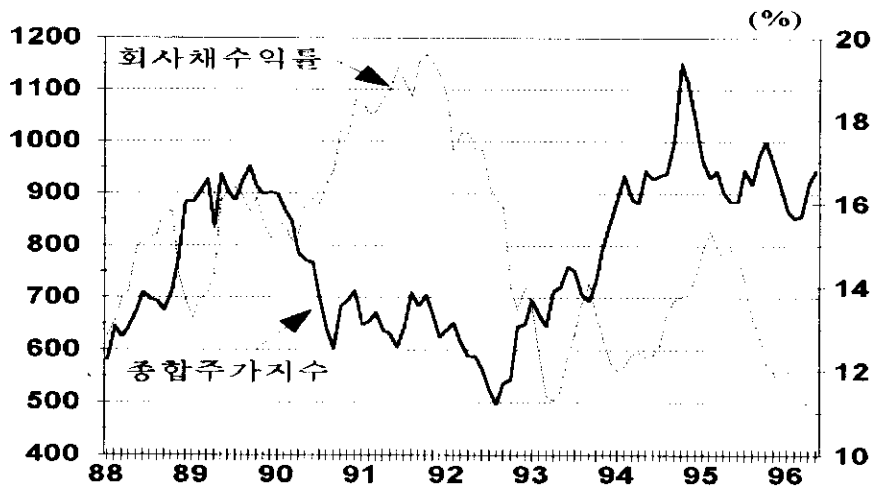
○ 중시 부진의 요인

- i) 경상수지 적자 확대, 금리 및 물가 인상 조짐
- ii) 수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하강세
- iii) 하반기 주식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감

○ 최근의 상승 요인

- i) 주가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 ii) 7월 2일 있는 청와대 경제 각료 회의 이후 하반기 경제에 대한 의견 수렴
- iii) 3/4분기 주식 공급 물량의 축소 수정
- iv) SOC 투자의 조기 집행 계획

<주가지수와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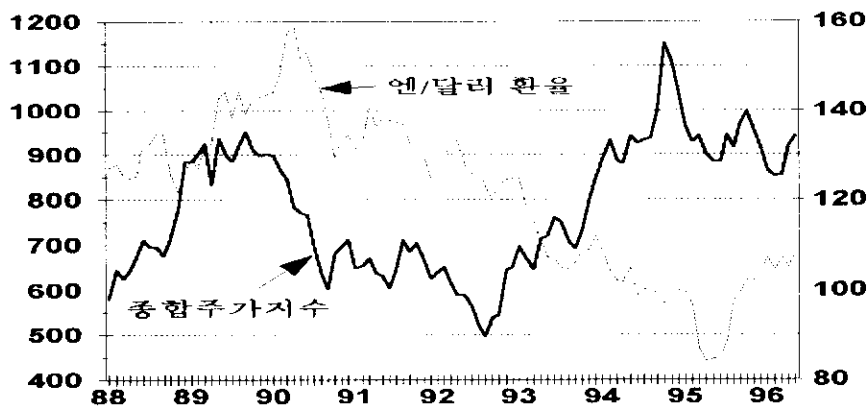
금리 상승은 국내 주식시장에 負의 영향

- 금리 상승은 국내 주식시장에 負의 영향을 미침
 - 금리의 상승은 주식 대신 채권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것과
 -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株價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엔低는 국내 주식시장에 負의 영향

- 엔低는 국내 주식시장에 負의 영향을 미침
 - 93년 중반 이후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 첫째, 엔低로 인한 국내 수출 기업의 국제 가격 경쟁력 하락 → 수출 감소 → 기업의 수익 감소 → 주가 하락을 기대 할 수 있고,
 - 둘째, 엔低로 인한 대일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 → 생산 원가 감소 → 기업의 채산성 개선 → 주가 상승도 야기 될 수 있음
 -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은 첫째 효과가 둘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으로 엔低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단,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기·기계 산업의 주가는 엔低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이 낮아져,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주가지수와 엔/달러 환율 변동 추이>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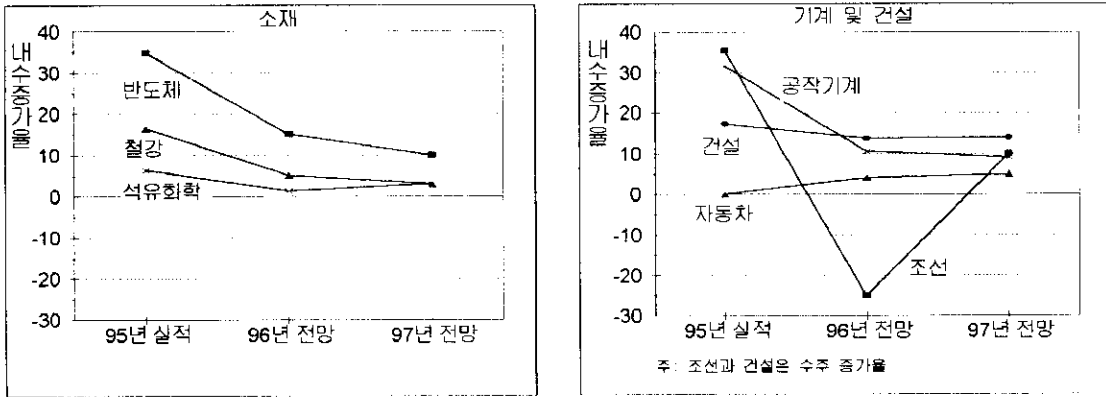
	하반기	97년
주요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투자 조기 확대 • 정보통신 사업의 지속 •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확대 • 금융산업 개편에 따른 금융주의 강세 • 5월에 매수한 신용거래의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른 물량 압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M&A 관련주의 부상 • 97년에 있을 대선으로 인한 주식투자의 기대감 상승 • 공기업 민영화와 대형회사의 상장에 따른 공급 물량 압박
증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저 현상의 지속 예상 • 경기 하강 국면 • 물가, 금리 불안 • 경상수지 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 OECD 가입 예상
종합 전망	<p>• 증시가 경기에 약 2분기 정도 선행한다는 가설에 따르면 96년 9~11월부터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이는 경기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저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p>	<p>• Fundamental한 측면에서는 급속한 상승이 어렵지만 외국계 자금의 증시 유입과 증시 개방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면 내년도 증시는 본격적인 상승을 맞이할 것임</p>

97년 증시는 투자 심리 및 경기 향방이 결정

- 내년도 증시의 향방은 투자 심리의 회복과 내년도 경기 동향에 따라 결정될 것임
- 공급면에서의 물량 압박은 당분간 지속되어 증시 상승의 걸림돌 역할을 할 것임

3. 주요 산업별 전망

<내수 경기>



국내 경기 하강에 의한 내수 증가율 하락세

○ 96년도 전망과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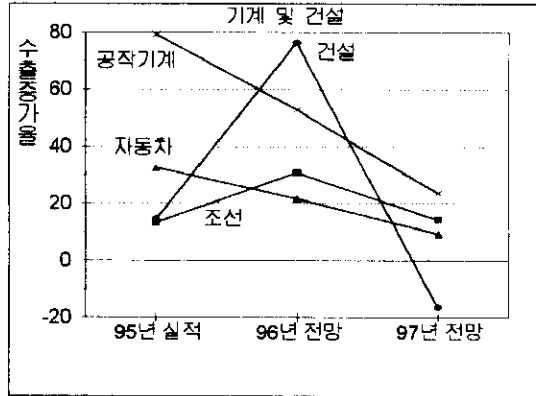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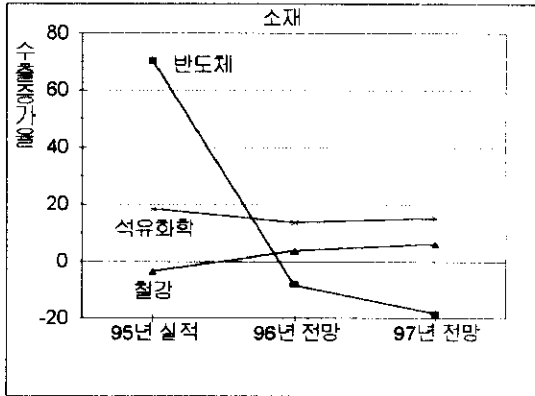
- 전망
 -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내수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조선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하락 요인
 - 하강 국면에 접어든 국내 경기 때문임
 - 조선의 경우는 엔저에 따라 수주 경쟁력의 약화에 기인함

97년 내수 시장은 96년도 신장세 유지 전망

○ 97년도 전망과 영향 변수

- 전망
 - 조선을 제외하고 96년도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즉 국내 산업경기의 연착륙이 기대됨
- 주요 영향 변수
 - 국내 경기의 연착륙 가능 여부
 - 특히 시장 개방, 대통령 선거 경기

<수출 경기>



반도체, 공작기계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

○ 96년도 전망과 영향 요인

- 전망: 산업별로 상반된 경향을 보임
 - 반도체 · 공작기계의 신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반면, 석유화학은 예년 수준을, 건설 · 조선 · 철강은 예년보다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영향 요인
 - 산업별 경기 순환(반도체, 조선)
 - 엔저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의 약화

97년 수출 경기는 소재 분야는 96년 수준, 기계 및 건설 분야는 하향세

○ 97년도 전망과 영향 변수

- 전망: 소재 분야는 96년 수준, 기계 및 건설 분야는 하향세
 - 철강과 석유화학은 올해보다 상승세를 탈 것이지만, 반도체 · 공작기계 · 조선은 96년도와 마찬가지로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다만, 건설은 96년도 신장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영향 변수
 - 세계 경기는 호전될 전망이어서 수출 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엔저가 지속될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 여부가 수출 경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 석유화학

동향

96년 상반기 수출 둔화로 경기 부진

○ 96년 상반기 석유화학 경기는 수출 둔화로 부진하였음

전망

○ 96년도 석유화학 경기는 국내 경기 부진과 중국 시장의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부진해질 것임

- 수출은 전년 대비 12.5%(347만 톤)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744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97년에도 경기 부진 지속 전망

○ 97년에도 유화 경기는 부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 내수는 97년에도 국내 경기의 부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 증가된 766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내수 부진과 공급 증대로 인해 업체들이 수출 확대에 노력하면서 물량 면에서 전년 대비 15%가 늘어난 39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치열해진 경쟁으로 단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임
- 이 때문에 국내 유화 업체들은 수익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1995		1996		199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석유화학	내수(천 톤)	7,347 (6.3)	3,651 (3.3)	3,790 (3.1)	7,441 (1.3)	7,665 (3.0)
	수출(천 톤)	2,964 (18.3)	1,668 (13.8)	1,695 (4.5)	3,443 (13.5)	3,996 (15.0)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2) 철강

동향
 내수는 호조, 수출은 부진
 ○ 내수는 호조세를 보인 반면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함

전망
 ○ 금년, 내수 증가 둔화와 수출 증가가 기대됨
 - 내수는 5.5%의 증가율에 그치고 수출은 내수 둔화, 수출 공급 여력의 확대로 3.6%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내수 둔화와 수출 증가세 지속
 ○ 내년, 내수 둔화와 수출 증가가 지속될 전망
 - 내년에는 국내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전망이기 때문에 철강 내수의 증가율이 금년보다 더욱 낮아져 3.0%에 그칠 전망이다
 - 수출은 수출 여건이 금년보다 상당히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전세계 철강 수요가 올해 1% 내외의 미미한 증가에서 내년에는 4% 증가로 회복될 전망이다
 · 국제 철강 수요 호조에 따라 수출량의 증가, 철강재 가격의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수출 채산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1995	1996		199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철강	내수(만 톤)	3,553 (16.5)	1,830 (10.6)	1,900 (0.0)	3,730 (5.0)	3,863 (3.0)
	수출(만 톤)	912 (△3.6)	450 (△3.6)	495 (11.2)	945 (3.6)	1,001 (6.0)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3) 반도체

동향

가격 폭락으로 수출 증가율 급락

- 96년 상반기中 반도체 가격의 폭락으로 수출증가율이 급락
 - D램 가격이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동안 1/4로 폭락
 - 이로 인해 4월 이후 작년 동월 대비 수출이 감소로 돌아섬

전망

97년 반도체 가격의 재하락으로 경기 부진 심화

- 가격은 96년 하반기에 안정화되었다가 97년에 재차 하락 전망
 - 반도체업체들간의 증산에 대한 자율 규제와 PC업체들의 반도체재고 소진의 완료로 공급과잉 상태의 해소가 예상됨
 - 그러나 97년에는 대만업체들이 본격 양산에 들어가 공급과잉이 심화될 전망이다
- 1~2년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
 - 96년에는 수출감소율이 -8.3%, 97년에는 -18.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번 하강국면을 거치면서 일본과 대만의 일부 경쟁업체들이 퇴출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업체들에게 유리함
 - 일본 노무라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 12~13% 우위에 있음

		1995	1996		199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반도체	내수(억 원)	89,691 (34.9)	43,358 (20.3)	59,876 (11.6)	103,234 (15.1)
	수출(억 달러)	221.1 (70.3)	104.5 (16.6)	98.1 (△25.4)	202.6 (△8.3)
					113,557 (10.0) 165.0 (△18.6)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4) 공작기계

동향

내수와 수출 모두 높은 신장세

○ 1/4분기 내수와 수출은 당초 예상과 달리 예년과 같이 높은 신장세를 보였음

전망

○ 1996년도 내수와 수출은 신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내수는 경기 둔화에 따라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작년 수준의 성장률에는 못미칠 것임
 - 수출은 올해에도 여전히 높은 신장세를 보이겠으나 엔저에 따라 일본 업체의 가격 인하 공세로 수출 시장의 잠식이 예상됨

국내 경기 둔화로 내수 시장 침체

○ 1997년도 내수 경기는 96년도와 유사할 것이지만 해외 시장은 예년보다 다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됨
 - 내수는 비록 정부의 자본재 육성 정책은 지속되겠지만 설비투자율이 1996년도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96년 수준과 유사할 것임
 - 수출은 일본 업체의 저가 공세가 지속될 것이고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출 증가율은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1995	1996		199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공작기계	내수(억 원)	17,293 (31.7)	8,335 (16.6)	10,787 (6.3)	19,122 (10.6)	20,862 (9.1)
	수출(억 달러)	3.6 (79.1)	2.3 (64.3)	3.2 (45.5)	5.5 (52.8)	6.8 (23.6)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5) 자동차

내수는 회복세, 수출은 다소 둔화

동향

- 내수는 경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으며 수출은 다소 둔화되었음

전망

- 올해는 내수 회복과 수출 신장세 둔화가 전망됨
 - 내수는 경차 우대 정책에 따라 연간으로 4.1% 증가가 전망됨
 - 수출은 동구권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출 확대로 21.5% 증가할 전망이다
 - 그러나 북미 지역에서는 일본 업체들의 공세적 판매(인센티브 인상)에 의해 일본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내수 신장세는 유지, 수출은 크게 하락

- 1997년도에 내수 신장세는 유지될 것이지만 수출은 크게 하락될 전망
 - 내수는 올해보다 5% 증가한 170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상용차(2.4%)보다 승용차(6%)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수출은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9.3%의 증가에 그칠 전망
 - 수출선 다변화가 한계에 이르면서 더 이상 수출 증가 요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1995		1996		199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자동차	내수(천 대)	1,556 (0.0)	786 (5.6)	834 (2.7)	1,620 (4.1)	1,701 (5.0)
	수출(천 대)	979 (32.5)	587 (11.8)	602 (32.6)	1,189 (21.5)	1,300 (9.3)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6) 조선

동향

수출은 증가세, 수주는 크게 하락

- 수출은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주는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음

전망

- 올해 수주량은 작년 수준을 밑돌 것이나 수출은 작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 수주는 엔저에 따라 일본과의 수주 경쟁에서 고전이 예상됨
 -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 우위가 현재 2% 정도인데 품질, 금융 등 비가격 경쟁력을 고려하면 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은 건조 능력 향상에 의해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밝지 않은 신조선 수주 전망

- 1997년도 신조선 수주 전망도 밝지 않으며 수출 신장세도 둔화
 - OECD 다자간 조선 협정의 발효로 국내 업체들의 저가 수주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어 예전과 같은 700만 GT 이상의 수주는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러나 내년에는 세계 신조선 수주량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주량이 증가할 것임
 - 선박의 건조 능력 증대가 마무리될 것이므로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1995	1996		199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조선	수주(천 GT)	7,760 (35.4)	1,899 (△40.8)	3,921 (△13.8)	5,820 (△25.0)	6,400 (10.0)
	수출(억 달러)	50.5 (13.1)	33.9 (77.5)	32.1 (2.2)	66.0 (30.7)	75.4 (14.2)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7) 건설

96년 상반기 건설 수주는 급신장

동향

- 상반기 國內外 건설수주는 제조업 분야와 달리 급신장을 보였음

전망

- 96년도 국내 수주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나 해외 수주는 대폭 증가가 전망됨
 - 96년 국내 건설은 13.7% 증가한 약 68조 원으로 예상됨
 - 96년 해외 수주는 83년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13년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더욱이 리비아 대수로 수주시 150억 달러에 이를 전망

국내 수주는 증가, 해외 수주는 대폭 감소 전망

- 97년 국내 건설 수주는 증가할 것이나 해외 수주는 다소 감소 될 전망
 - 국내 수주는 올해보다 14% 증가할 전망
 - 민간 부문은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정부의 공공 부문 투자 확대와 해외 현금 차관 허용으로 SOC 민자 유치 활성화
 - 해외 건설 수주는 수주 증가율이 감소
 -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나 대형 수주는 어려워 일시적인 감소

		1995	1996		1997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	내수(조 원)	59.7 (17.3)	29.0 (19.7)	38.9 (9.1)	67.9 (13.7)
	수출(억 달러)	85.1 (14.4)	53.0 (77.9)	97 (74.7)	150 (76.2)
					77.4 (14.0)
					125 (△16.7)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산업별 환율 변화의 수출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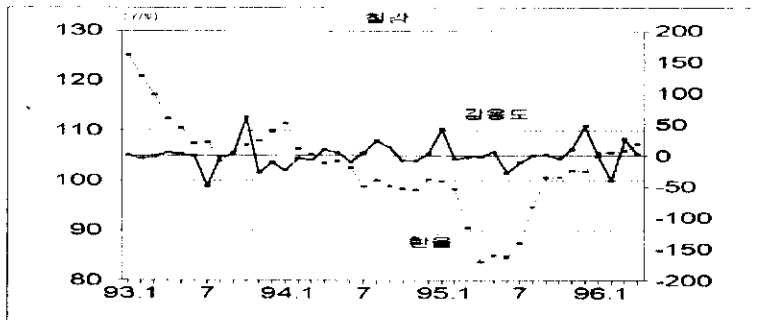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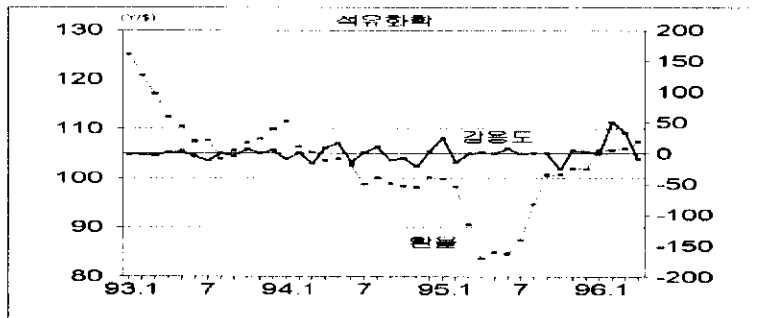
엔화 변동에 민감한
기계 산업 분야

○ 감응도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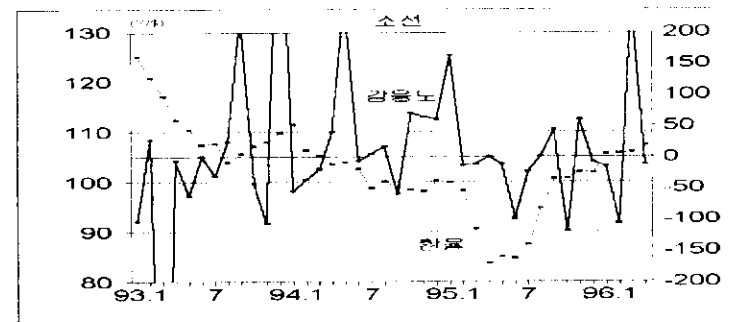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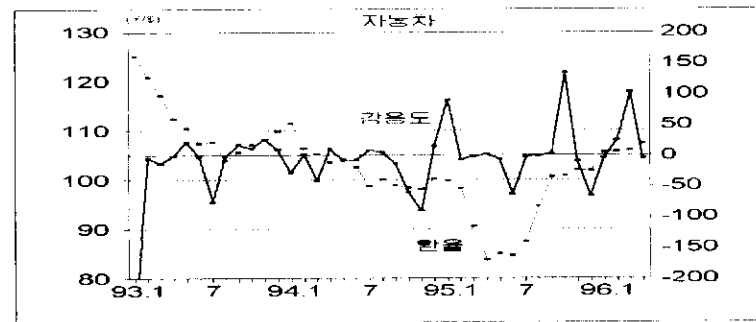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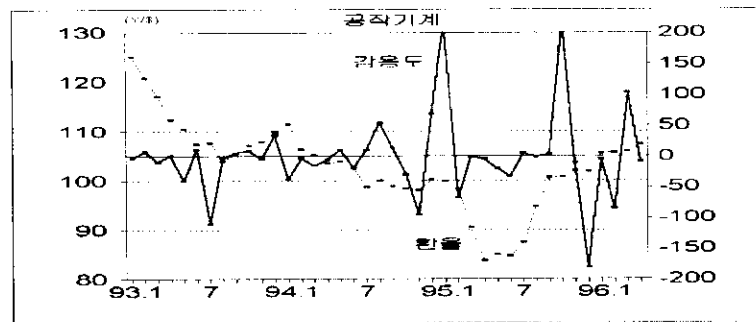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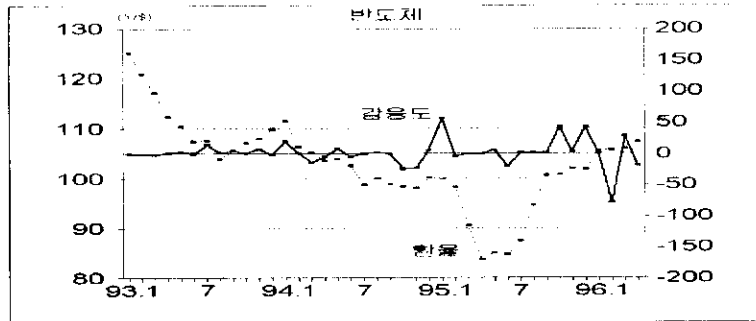
- 前月 對比 수출 증감률 ÷ 前月 對比 엔/달러 환율 증감률
- 환율 변동에 따라 수출액이 어떻게 추세적으로 반응하는가를 나타냄(93년 1월부터 96년 4월까지)
- 그러나 환율에 의한 수출 반영 지체(time lag), 엔화 이외의 수출 영향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

- 기계 산업 분야(공작기계, 자동차, 조선)가 소재 산업 분야(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보다 엔화 변화에 더욱 민감함
- 석유화학, 반도체, 공작기계는 최근들어 엔화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임



96年 下半年期 및 97年 國內外 經營 環境 展望



IV. 주요 경제 현안

1.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

기존 정책 기조 유지, 물가·노동 문제에 적극 개입 예상

-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물가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적극 개입할 것을 시사함
 - (특징) 고비용 구조의 문제점으로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정리 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의 추진을 예고함
 - (문제점) 물가와 국제 수지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부족함
 - 물가 문제의 경우, 지표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인위적인 개입을 시사하고 있어 시장 질서 교란이 우려됨
 - (개선점) 정책수립·운영에 있어 탄력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정부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문제 인식 가져야 함
 - 경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바탕을 둔, 시기 적절하고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요구됨

<주요 경제 지표의 추이 및 정부 목표 >

(단위 : 억 불, 전년동기비 %)

	1994	1995	1996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8.6	9.0	7.5	7.0	7.0~7.5
소비자물가 상승률	5.6	4.7	3.8	4%대	4%대
경상 수지	-47.8	-88.2	약 -90	-20~-20	-110~-120
통화 증가율(M ₂ 평잔)	15.6	15.5	14.6	-	15.5

주: 물가는 전년말 대비

2. 경제 위기론의 실제

- 급격한 경기 침체에 의해 국내 경제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7%대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현 경제 상태를 위기라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임
- 국내 경제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주요 거시 지표의 등락에 있다기 보다는 성장 내용의 부실함과 금융 시장의 난조 그리고 정책 운영의 혼선에 있음

성장 내용의 부실함	(거시적 측면) - 산업간 성장의 불균형 심화 · 체감 경기 악화의 근본 원인 - 내수 중심의 성장 구조 · 물가 상승과 성장 잠재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 - 개인 저축률의 급격한 하락 · 94년 개인 저축률이 33.0%, 95년엔 29.9% · 무역·무역외수지 적자 확대와 대외 부채 증가 - 경기 둔화 속 경상수지 적자 확대 · 96년 경상수지 적자는 11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 - 내년 경기 전망 불투명 (미시적 측면) - 반도체, 철강, 자동차와 같은 수출 주도 품목들의 경기 악화
금융 시장 난조	- 증시 침체 - 금리 상승세로 반전 - 원/달러 환율의 고평가
정책 운영 혼선	- 경기 예측 능력 취약 - 개방 경제하 거시 정책 대응 능력 취약 - 계획보다 빠른 금융 시장 개방 - 급진적이고 비밀관된 노사 관계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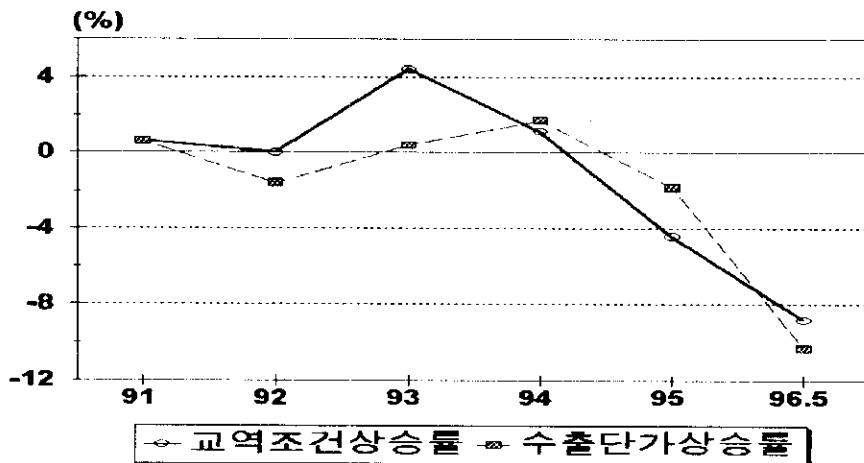
3. 경상수지 적자 심화

교역조건 악화로 무역수지 적자 증가

○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증가

-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이 93년 이후 악화 추세로 반전되어 96년 5월에는 -8.8%를 기록
- 96년 5월에는 수입단가가 1.6% 하락하였으나 수출단가는 중화학 공업(14.9%)을 중심으로 10.3% 하락

<교역조건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교역조건 = 수출단가 / 수입단가

- 무역수지 적자(통관기준)를 수출입 물량과 교역조건 변동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95년 이후의 무역수지 적자는 교역조건 악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교역조건 변동과 무역수지 적자의 상관 관계>

(억 달러)

	93	94	95	96. 1~5
무역수지	-15.6	-63.4	-100.6	-73.8
물량 요인	-51.7	-74.2	-49.9	-39.1
교역조건 요인*	36.1	10.8	-50.7	-34.7

주: *는 (수출금액 - 수입금액) - (수출금액/전년기준 수출단가지수 - 수입금액/전년기준 수입단가지수)

여행수지 악화에 의해 무역외수지 적자 확대

○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에 의해 무역외수지 적자 확대

- 경상수지 적자 중 무역외수지 비중이 95년 5월 까지 누계로 24.4%였는데 96년 5월에는 36.9%로 상승
- 무역외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 선진국에 대한 기술 용역 대가 지급 증가
 - 소득 증가와 해외 여행 자유화에 의한 여행 경비 지출 증가
 - 무역 규모 증가에 의한 운송비 부담 증대에 의한 것임
- 한편 OECD 가입이 실현되는 경우에 이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해지는데 이는 무역외수지 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

< 경상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95. 5.	95. 1~5.	96. 5.	96. 1~5.
경 상 수 지	-7.9	-50.7	-14.4	-81.1
무역수지	-5.8	-37.4	-7.9	-46.9
수출	106.5	466.4	113.4	535.5
수입	111.3	503.7	121.3	582.4
무역외수지	-0.7	-12.4	-5.6	-29.9
운수서비스	-3.5	-16.7	-4.8	-22.5
여행	0.1	-3.0	-2.2	-9.3
기타 용역	1.2	1.3	0.2	-6.2

對개도국 무역수지
큰 폭 흑자, 對선진
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

- 지역별로는 對개도국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도 對선진국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로 전체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
 - 對선진국 수출이 5월 누계로 7.0%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년 같은 기간의 29.35% 증가에 비해 22.3%포인트가 하락
 - 반도체 가격 하락이 주요인
 - 對개도국 무역수지는 중화학공업 상품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흑자 규모가 확대됨
 - 95년 5월 누계 67.3억 달러에서 96년 5월에는 79.3억 달러로 증가

<지역별 무역수지 추이>

(억 달러)

	95. 5	95. 1-5	96. 5	96. 1-5
대 선진국	-30.2	-131.7	-33.7	-153.1
· 미국	-8.1	-32.1	-10.0	-43.2
· 일본	-16.0	-67.1	-12.4	-60.3
· EU	-3.5	-15.4	-4.6	-15.3
대 개도국	18.5	67.3	20.1	79.3
· 동남아	18.6	70.9	17.1	80.7
· 중국	0.6	5.1	1.8	9.8
· 중남미	3.2	15.9	3.6	14.2

주: 통관 기준임

주력 수출 품목 수출
큰 폭 하락

- 품목별 수출을 살펴 보면 주력 수출 제품들이 증가율면에서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함
 - 4월 이후 전자 제품, 화공품, 금속 제품 등 주력 수출 제품이 수출 단가 하락으로 감소세가 확대

<품목별 수출 추이>

(억 달러, %)

	95. 5	95. 1-5	96. 5	96. 1-5
중화학 제품	73.0(44.0)	470.0(32.7)	75.2(3.0)	370.5(15.0)
· 전자제품	20.8(48.1)	92.2(42.5)	19.4(-7.0)	107.0(16.1)
· 화공품	6.3(81.5)	30.5(83.1)	5.3(-15.3)	29.7(-2.7)
· 자동차	6.8(59.9)	34.6(65.7)	9.5(39.9)	43.8(26.6)
· 기계류	11.5(38.1)	50.6(33.7)	12.9(12.1)	60.8(20.1)
· 금속제품	10.4(73.5)	41.6(39.7)	6.5(-37.5)	30.5(-26.7)
경공업 제품	26.5(18.3)	117.4(17.2)	30.0(13.4)	130.2(11.0)

주: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소비재 수입 큰 폭 증가

○ 용도별 수입을 살펴보면 자본재, 원자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에 소비재 수입은 높은 증가세 유지

- 자본재는 작년 5월 누계 40.2% 증가에서 8.2%로 하락
- 원자재는 작년의 34.7%에서 17.5%로 증가세 반감
- 소비재는 소득 증대와 대외 개방 확대로 96년 5월 누계로 21.7%의 높은 증가세 유지

<품목별 수입 추이>

(억 달러, %)

	95. 5	95. 1-5	96. 5	96. 1-5
자본재	46.9(34.9)	212.8(40.2)	48.1(2.5)	230.2(8.2)
· 기계류	20.9(60.1)	94.6(54.1)	21.0(0.4)	99.4(5.1)
· 전기/전자	16.8(38.7)	75.5(45.3)	17.6(4.6)	85.3(13.0)
· 수송장비	3.8(-30.5)	17.1(7.6)	3.9(4.3)	18.3(6.6)
원자재	58.6(42.7)	267.2(34.7)	64.5(10.1)	314.1(17.5)
· 원유	9.4(48.4)	45.1(36.4)	10.1(7.3)	52.9(17.3)
· 화학제품	7.7(44.0)	33.9(35.1)	7.9(2.0)	36.2(6.8)
· 철강	5.3(21.6)	21.9(10.3)	6.4(19.9)	30.9(41.3)
소비재	12.7(44.7)	54.4(33.9)	14.3(12.3)	66.1(21.7)

주: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4. 연중 물가의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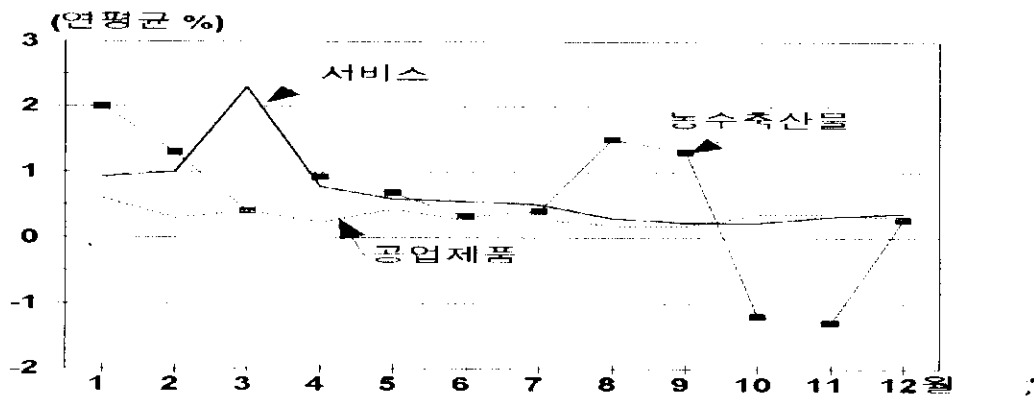
연중 물가의 불균형은 물가 문제의 주요 현안

- 연중 물가의 불균형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와 더불어 물가 문제의 주요 현안임
- (농수축산물) 본격적인 출하시기인 4/4분기에는 크게 하락하는 반면, 4/4분기를 전후한 1/4분기와 3/4분기에는 크게 상승함
- (공업제품) 비교적 연중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 1/4분기에 물가 상승이 집중됨
 - 1/4분기는 각종 요금의 인상폭 결정 시기이며, 특히 3월에는 등록금 인상이 집중되면서 상승률이 연중 최고치로 나타남
 - 전년도에서 인위적으로 이월된 물가 압력도 불균형을 심화시킴

연중 물가 불균형 개선도 경제 선진화의 중요 과제

- 연중 물가의 불균형 개선도 경제 선진화의 중요한 과제임
- 물가 상승 압력의 불균형은 소비자의 물가 심리를 불안하게 만듦
- 또한 시장 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함
- (대책) 인위적인 물가 개입의 배제하고 농산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물가 불균형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함

< 부문별 연중 물가 상승률 (1990~1995) >



5. 노사 관계의 불안정

96년 상반기 분규 대
형화, 장기화 추세
재등장

○ 96년 상반기 노사 분규의 대형화, 장기화 추세
재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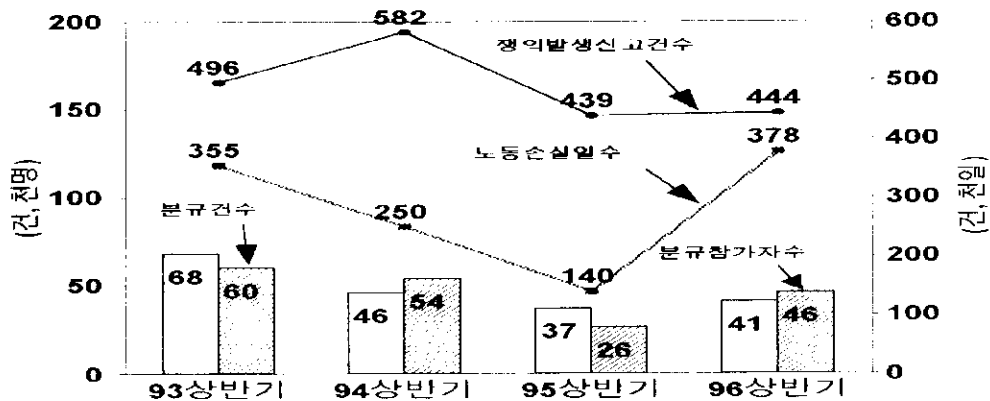
- 96년 상반기의 분규 건수(37 →41), 쟁의 발생 신고 건수(439 →444) 증가는 미미하였음
- 그러나 노동손실일수와 분규참가자수는 각각 74.5%, 170.4% 증가
- 근로 시간 단축, 작업 중지권 등 단체 협약상의 쟁점 사안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임

96년 하반기 노사 관
계 안정의 큰 흐름
유지, 일부 불안정
요인 상존

○ 96년 하반기 노사 관계는 안정의 큰 흐름은 유
지할 것이나 불안정성의 가능성 또한 높음

- 근로시간 단축, 작업중지권을 중심으로 한 단체교섭상의 쟁점사안이 민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될 것임
- 공공부문에서의 해고자 복직 합의는 하반기 노사 관계에 새로운 불씨로 등장할 것임

< 노사분규 관련지표 동향 >



자료: 노동부

하반기의 노동법 개정
 정에 대한 노사 상반
 되는 입장

-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법 개정에도 있어서도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게 존재
- 지난 7월 2일 '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에서 정부가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을 강력히 천명함
- 노사 관계 개혁 위원회에서도 노사관계 개혁 과제에 이 제도들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나타냄
- 이에 대한 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노사관계의 불안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등에 대한 민노총의 적극적인 개정 요구도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임
- 단, 경기 하강 국면, 국제적 경쟁 격화라는 경제상황과 공공부문 노사협약의 원만한 타결, 민노총의 합법화를 위한 온건 성향 표출 등의 요인으로 노사관계 안정의 큰 흐름은 이어질 것임
- 분규 건수, 쟁의 발생 신고 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나 노동손실일수와 분규 참가자수의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임

97년 노사관계 안정
 화 추세의 큰 흐름
 지속 전망

- 97년에도 노사관계의 안정화 추세라는 큰 흐름은 계속될 것임
- 단, 노동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단기적인 행태는 크게 달라질 것임

노사 관계 안정화 요인	노사 관계 불안정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하강과 국제적 경쟁격화의 경제적 요인은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어렵게 만듦 ·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임금교섭에서의 유연한 대응 확산 · 노사화합의 흐름 확산 ·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민노총의 제도내 흡수, 온건화 추세 강화 ·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요인, 강성투쟁에 대한 비판적 여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지불능력의 한계 · 경영참가, 해고자 복직 등 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사대립 격화 ·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이 도입될 경우 이의 시행을 단체협약으로 저지하고자 하는 노조측 시도 · 민노총의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노총 내 강성 세력의 득세와 투쟁 강화 가능성 존재

6. 연내 OECD 가입

OECD 가입은 주로
금융 부문의 많은 부
담과 변화를 줄 것임

○ OECD 개관

- OECD는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선진국간 클럽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세계경제질서 확립에 관여하고 있으나 주로 금융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WTO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특히 무역 부문의 경제 질서에 관여하고 있음
- 최근 OECD는 헝가리, 폴란드 등을 가입시켜 체제전환국의 공산주의 부활을 견제하는 등의 정치적 경향도 나타내고 있음

○ 가입 추진 현황

- OECD가입의 최종관문격인 양대 자유화규약위원회(CMIT/CIME)를 통과하여 금년내 가입이 확실시됨
- 9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OECD 가입을 추진해 오며 보험, 해운, 금융시장,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CMIT),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CIME), 재정, 환경, 노동, 농업, 경제발전, 무역 등 11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
- OECD에 제출한 일정에 따른 조기 개방이 불가피함
- 금융시장의 개방일정이 2년 앞당겨 졌으며 수입선다변화제도도 99년에 완전 폐지 예정

○ OECD가입의 영향

- 자본자유화 등으로 인한 거시 경제 정책의 불안정성 증대
- 금융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금융 부문의 잠식
- 노사, 환경, 뇌물수수 및 부패 부문 등의 각종

- 제도 개혁으로 인한 과도기적 문제점들이 표출 될 것임
- 복수노조 및 제3자 개입허용 등에 대한 사안은 여전히 잔류
 - 환경 및 농산물 시장 개방 협약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나 국내 기준은 대폭 강화 될 것임

< OECD 가입을 위한 국내 제도의 주요 정비 내용 >

분야	개편 내용
소비자 보호	- 제조물 책임제 입법화와 리콜 제도 확대
환경	- 유해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유해 화학 물질 관리 등 연구 시설 및 기술이 부족한 12개 부문은 조건부 수락 - 기후변화협약의 의무도 개도국 지위 유지 요청
노동	- 「新노사관계구상」에 의거 노조의 정치 활동 허용, 제3자 개입과 복수 노조 금지 조항의 변화
저시정책	- 통화 정책을 공개 시장 조작 등의 간접 규제 방식으로 전환
무역	- 수입선 다변화 제도 99년 완전 해제
자본이동	- 채권 시장 개방은 국내외 금리차가 2% 내외일 때 개방 - 외국인의 간접 채권투자 대폭 확대 허용. 채권 시장 완전 개방의 전단계로 간접 투자의 창구로 「채권형 컨트리 펀드」를 발행하여 단계적 개방 - 해외 증권투자 전면 자유화. 개인 5억원, 일반 법인 10억원 투자한도 폐지
외국인 투자	- OECD측에서 개방 수준에 불만을 표시. 95년 11월에 발표한 외국인 투자 개방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 개방 수준을 앞당겨 확대 예정 - 기존 외자도입법 폐지 -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조세 및 공장부지 지원 강구 - 거시 안정 기조의 유지를 위하여 금융시장 보다는 외국인투자부문의 자유화가 빨리 진행될 것임

기업의 다방면에 걸친 대응이 요구됨 ○ 기업의 대응 과제

- M&A 허용
 - 97년부터 외국인에 의한 국내 기업의 우호적인 M&A가 가능하며 국내기업끼리는 적대적인 M&A도 가능 예상
 - 향후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인 M&A에도 대비하여 기업 재무 구조의 선진화 필요
- 자본시장 개방
 - 해외 자본 시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강구
 -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 증대에 대비한 외환 및 금리 리스크 대응 방안 강구
- 노동
 - 복수노조 및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 민감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협의 될 예정
 - 정리해고제 등 노동 관계법이 개정되는데 따른 신노사관계의 확립 시급
- 환경
 - 오염자 부담 원칙,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유독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법령 정비 등으로 기업체들의 환경 비용이 증가할 것임
 -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 및 기업 문화 정착을 서둘러야 함
- 건설
 - 98년부터 민간건설 부문의 완전 개방
 - 첨단 공법이 필요한 플랜트, 해저터널 등 고부가 기술의 개발 시급

7. 자유 변동 환율 제도 도입

자유 변동 환율 제도 도입은 환율의 변동성 증대

- 96년 하반기 이후 97년까지 환율 제도의 개편이 예상됨
 - 96년 10월 중에 국내 외환 시장에서 엔/원화의 거래가 가능
 - 97년 중에는 현재의 일일 환율 변동 허용 폭이 폐지되고 완전한 자유변동 환율제로의 이행 예정
- 환율 제도의 개편은 환율 결정의 시장 기능을 높이지만 환율 변동성을 증대시킬 것임
 - 환율 변동성 증대는 장기 투자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기업의 환차손을 증가시킬 것임
 - 특히 환율 변동성 증대에 의한 금융 시장 불안은 정부의 통화금융 정책의 주요 제약으로 작용할 것임

<96~97년 환율 제도 개편의 영향>

구분	예상 시기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원/엔 시장 개설	1996년 10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은행은 국제 외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원화와 엔화의 거래 가능 - 원/엔 환율의 독자적 가격 기능 회복으로 엔/달러, 원/달러 환율의 급변에 영향을 적게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원/엔 시장 환율과 재정 환율간의 이중 가격 형성 우려 · 당분간 원/엔 환율을 재정 거래를 통해 결정
자유변동 환율제도	1997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달러 환율의 시장 기능 제고 · 미달러화의 수급 상황을 정확히 반영 - 투기성 자금 유출입 축소 기대 · 일일 변동 허용폭 폐지는 환율 예측을 더욱 어렵게하여 투기적 자금 유출입 축소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의 변동성 증대 · 환위험 상승에 의한 장기 투자 자본의 유입 억제 · 기업의 환차손 가능성 증대 · 정부 정책의 혼란 가중 - 균형 환율에서 장기간 이탈 가능 ·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대

8. 새로운 통상 이슈

(1) WTO의 신라운드

- UR협상에서 이월된 중점 협상 논의들이 새로운 통상 이슈로 대두
 - 각 의제의 내용과 포괄 범위에 대한 협상

	WTO 신규법		
	환경-무역의 연계	다자간투자협정	무역과 경쟁 정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 12월 싱가포르 각료 회의에서 무역-환경의 연계에 대해 보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 OECD 각료 이사회에서 97년 각료이사회까지 타결을 목표로 다자간투자 협정(MAI) 협상의 즉각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내에서 각국 반독점법 체계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여 향후 협상에의 기초 자료 마련 중임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과정에서의 환경위해성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다자간 투자 협정을 체결하여 무역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연계 · WTO 내 논의는 이견으로 진전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경쟁 정책의 단일 규범화를 목표로 함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과정이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에 그 제품까지 환경 규제에 포괄시키는 것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루어짐 · 개도국의 반발 심화 · 개도국을 제외시키고 부분 협상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 우리의 OECD 가입이 현실화됨에 따라 MAI 가입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럴 경우에 국내 경제 개방의 가속화가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각국간 심한 이견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다자 협상의 차원이 아니라 2국간 쌍무 협상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 예상됨

(2) ISO 14000 시리즈(국제 환경 경영 인증 규격)

국제표준기구(ISO)에서 환경보호기업 상품임을 인증하는 제도

○ 개요

- 국제표준기구(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인증 절차
- 기업의 경영자가 환경 보전 및 관리를 경영의 목표로 채택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외부 환경 감사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환경 보호 기업의 상품임을 인증하는 제도

모든 업종의 기업에 적용

○ 목적 및 대상

- 목적 : 기업의 환경 경영 체제와 활동이 지구 환경 보호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공식 인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산업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
- 대상 : 사업 활동 전반에 대하여 산업체뿐만 아니라 병원, 백화점, 건설업, 해운업 등 모든 업종의 기업

96년 9월부터 ISO의 공식 규격 채택 확정

○ 최근 동향

- 96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ISO 환경경영기술위원회 제 4차 회의에서 ISO 14000 시리즈가 96년 9월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공식 규격으로 채택이 확정
- 93년 이후 추진되어 온 ISO 14000 시리즈가 3년 동안의 작업 끝에 국제 규격으로 정식 채택되어 Green Round 시대로 진입
- 이번에 채택된 규격은 크게 환경 경영 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과 환경 감사(Environmental Auditing) 규격으로 구분
- 일반 규격인 14001과 보조 규격인 14004는 환경 경영 시스템(EMS)규격에, 감사 일반 원칙인 14010, 감사 절차 규격인 14011, 감사자 자격 기준인 14012 등은 환경 감사(EA) 규격에 포함됨

- 또한 국제표준화기구는 중소기업형 환경 경영 규격인 ISO 14002를 별도로 제정하기로 결정
- 이 규격은 중소기업의 특수 사정을 감안, 14001 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이 14002를 획득할 경우 14001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
- 14002 규격 제정은 97년말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98년 중반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

○ 파급 효과

구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법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자율적 환경 관리 강화에 따라 행정 규제 억제 · 관료적이거나 사무적인 각종 불필요한 행정 요구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법규(환경 법규, KS 규격) 개정시 혼란 예상
통상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 규격 통일로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단일 관리 체제에 따른 무역 장벽 최소화(선진국 진출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의 인증 요구가 관례화 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기업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업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미취득시 공해 기업 이미지
비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국별 환경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 가능 · 인증 획득시 국제 경쟁력 확보(비가격 경쟁력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비용, 시간,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기술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술 및 산업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무역 장벽에 의한 국내 산업 활동 위축

주 : 긍정적 효과는 주로 인증 획득 추진시 및 획득시, 부정적 효과는 주로 인증 미취득시의 파급 효과임

(3) 한미 통상 관계

○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 통상 관계 악화 우려

한미 통상 관계	
배경 요소	대통령 선거와 통상정책 : 대통령 선거에 효과를 주기 위해 단기적 성과를 도출하려는 쌍무적 통상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현황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 : 1) 지프형 자동차세 인상 문제, 2) 민간 기업 통신장비구매시장에의 미국업체 참여를 한국정부가 보장, 3)미국산 쌀 수입 문제, 4) 철강제품 반덤핑 연례재심 : 철강의 대일수출가격 자료 제출 요구, 5) 한국기업의 미국 PCS사업 참여의 규제
쟁점	한미 자동차협상과 후속 협상 전망 -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향후 자동차무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고 함으로써 지속적인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음
전망	한미자동차 재협상 가능성이 높음 - 1996년 9월 협상 타결 직후 켄터 USTR 대표는 자동차 협정의 준수 여부를 내년 6월까지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USTR에 지시 - 주된 쟁점은 지프형 자동차세의 증가 문제를 비롯한 자동차세율 체계가 될 것임. 한미통상관계 전망 : 전반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식용 중국쌀 수입(1996년 수입분 71,000톤)의 축소 및 미국산 쌀의 일부 수입 가능성 - 민간 통신장비 구매시장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난항이 예상됨 - 미국에서의 PCS사업 참여 문제는 우리의 통신시장에 미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음 - 철강제품 가격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9. 홍콩의 중국 반환

1997년 7월부로 홍콩은 중국의 홍콩 특별구로 전환

○ 중국 반환 일정 개요 및 홍콩의 경제적 규모

- 1841년 영국과 중국 간의 아편 전쟁 결과 홍콩섬은 영국 점령, 이후 1898년, 홍콩섬과 구룡반도 일대의 新界지역에 대한 영국의 99년간 조차권 인정
- 1984년 조인된 영국과 중국간의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조차권이 끝나는 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 홍콩은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의 「홍콩 특별구」로 바뀜
- 홍콩의 경제적 규모 : 인구 621만명, 1인당 소득 23,000달러, 외환보유고 600억 달러(세계 6위), 교역량 4,200억 달러, 증시 규모 세계 8위

현재 거시 경제는 대체로 안정, 사회분위기는 어수선

○ 현재의 홍콩 경제 분위기

- 거시경제 : 대체로 안정적임, 그러나 내구성 소비재와 부동산 경기는 바닥세
- 사회분위기 : 영국, 싱가포르 등지로 이민 희망자 폭증
- 해외 투자 : 홍콩으로의 투자 확대(중국 기업, 해외 화교자본)와 홍콩내 자본의 해외 이전이라는 두 가지 양상 혼재
- 외국 기업 : 금융기관의 경우, 현행 홍콩법상 지점설치를 위해서는 1년간의 사무소 경력이 필수적이므로 중국 반환 이전에 지점 허가를 위한 사무소 설치 급증, 대만계 및 영국계 자본의 이탈 현상, 일본과 미국 자본은 관망세

향후 1국 2체제 존속

○ 향후 홍콩의 위상

- 중국의 입장 : 홍콩의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과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기 바람.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1국가 2체제」원칙을 고수할 것임
- 경제 환경의 변화 : 그러나 법규, 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 부정부패 단속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예상

한국은 對중국 교두보로 적극 활용 필요

○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 對중국 진출의 교두보 : 홍콩은 중국 경제, 또는 중화경제권의 일부로 완전히 편입되고 중국계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임. 따라서 중국 본토에 대한 직접 투자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홍콩을 교두보로 하는 전략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인허가 사항 : 「1국가 2체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홍콩의 중국으로의 반환은 본질적으로 중국 법체계에 따른 경제 활동의 통제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나 특허권 등 경영 활동 관련 각종 권리는 조속히 습득하여야 함

V. 경영 시사점과 대책

1. 경제 여건 종합 평가

		변동 방향		기업 경제에 미칠 영향					
		하반기	97년	수출		내수		자금 사정	
				하반기	97년	하반기	97년	하반기	97년
국내 수요	투자	0, ↑	0, ↑	▲	▲	▲	▲	▲	▲
	소비	0, ↓	0, ↓	▲	▲	-	-	-	-
	정부	↑	↑	▲	▲	+	+	+	+
정책	통화	↓	↑	-	+	-	+	-	+
	산업	↑	↑	+	+	▲	▲	▲	▲
국내 부문 종합 평가				▲	+	▲	▲	-	+

↓

국내외 부문 총평	▲	+	▲	▲	▲	+
-----------	---	---	---	---	---	---

↑

		변동 방향		기업 경제에 미칠 영향					
		하반기	97년	수출		내수		자금사정	
				하반기	97년	하반기	97년	하반기	97년
해외 시장	선진국	↑	↑	+	+	▲	▲	▲	▲
	개도국	↓	0, ↓	-	-	-	-	-	-
원유		↓	↓	+	+	▲	▲	+	+
국제 금리		↑	↑	-	-	▲	▲	-	-
원/달러		절상	절상	-	-	+	+	-	-
엔/달러		절상	절상	+	+	▲	▲	+	+
통상 여건		0, ↓	0, ↓	▲	▲	▲	▲	▲	▲
해외 부문 종합 평가				+	+	▲	▲	▲	▲

주 : 1) ↑는 증가(상승), 0는 이전과 비슷, ↓는 감소(하락)를 의미
 2) +는 긍정적 효과, ▲는 중립 효과, -는 부정적 효과를 의미

2. 경영 전략 방향

(1) 경영 환경 변화와 경영 전략 방향

<96년 하반기 및 97년 경영 전략 방향>

하반기 경영 환경	경영 전략 방향
경쟁력 약화 및 시장 개방 진전으로 경쟁 격화	<p><내부 역량 강화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 역량 강화를 위한 質的 經營 추구 - 적극적인 협력 업체 육성 - 조달·생산·판매 등 각 부문별 물류 합리화 - 정보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化로 시너지 효과 창출
국내 경기 둔화 속 시장의 세계화 진전, 세계 경기 상대적 회복	<p><시장 확대 및 창출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고객 만족 경영의 실현 - 고부가가치化의 적극 추진 - 브랜드 이미지 개발 - 전략적 제휴 등 외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 - 유망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투자 및 현지화 전략 추진 - 국제 정보 통신망(예:인터넷)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시장 창출
경영 리스크 증대 (금리 환율 변동성 증대, 소비자 니즈의 변화)	<p><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력 강화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재무 기능 강화 - 시장 수요와 생산의 연동성 강화 - 생산 시스템의 유연성 증대 - 고객 니즈의 세부적인 파악을 통하여 이를 상품 기획 단계부터 반영

(2) 세부 경영 전략

1) 기업 재무 전략

경기 하강기에는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유지 전략 필요

○ 경기 하강기의 기업 재무 전략은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함

○ 예산 실적 분석 강화

- 예산 실적 분석은 매출 계획, 원가 계획, 기타 비용 계획 등을 실적과 비교 분석하는 것임
- 예산 실적 분석을 강화하여 문제점 또는 이상 징후의 조기 발견,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함
- 이같은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 월별 또는 분기별 결산이 지연되지 않도록하여 경영과 관련된 의사 및 정책 결정을 적기에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분석을 위한 자료의 조작을 막아 의사 결정이 올바르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정보 처리의 신속성과 정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임

장기 자금 조달보다는 단기성 자금 활용

○ 기업 금융 계획의 보완

- 경기 하강 초기에는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므로 성급한 장기 자금의 조달을 자제하고 단기성 자금의 사용 비중을 높임
- 경기가 저점에 가까워지면 곧 금리가 상승하게되므로 장기 자금의 비중을 늘리고 단기 자금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2) 국내의 마케팅 전략

마케팅 활동 강화 필요

○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경제의 연착륙이 예상되므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함

- 마케팅 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을 통해 국내 영업망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유기적 업무 연계를 통

- 한 마케팅 영업력 확대에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고객 정보의 관리를 통하여 세분화된 고객 집단에 대한 마케팅 노력을 강화시켜야 함
- 해외 마케팅 활동은 엔저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현지화된 마케팅 조직과 현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품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함

3) 인사·조직 전략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용 필요

- 호황기에 비대화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의 Slim화 및 Flat화를 추구

노사 관계 안정 필요

- 노사 관계 안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 경기 하강과 더불어 노사 관계가 불안정해질 경우에 기업 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임
- 따라서 인원 변동과 같은 단편적인 방안 보다는 전체 종업원들의 합심 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혁신 등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 풍토를 조성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의 기본 바탕을 형성

4) 해외 투자 전략

전략적 제휴나 글로벌 아웃소싱 필요

- 하반기 기업의 해외 투자 전략은 사양 산업의 대후발개도국의 이전과 함께 네트워킹을 통한 전략적 제휴나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을 추구하는 것임
-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해외 투자로 후발개도국의 저임금을 최대한 활용
- 전략적 제휴와 아웃소싱을 통해 시간·비용·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
- 선진국의 현지 부품 조달 의무 비율(Local Content) 충족, 개도국의 GSP 혜택을 얻기 위한 현지 부품 조달 비율 확대를 위한 해외투자 증대